

OECD Health Statistics 2019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TENTS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
 - 3-1. 암
 - 3-2. 순환기계 질환
 - 3-3. 호흡기계 질환
 - 3-4. 치매
 - 3-5. 자살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건강 위험요인

5. 주류 소비량
6. 흡연율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보건의료자원

8. 총 병원 병상 수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10. 임상 의사 수
11. 임상 간호인력 수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보건의료이용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16.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
19. 제왕절개 건수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보건의료비용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 재원 비중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의약품 시장

25. 의약품 소비량
26. 의약품 판매액



장기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이용자를 위하여



■ OECD Health Statistics 개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각종 보건의료 분야 통계를 수집하여 매년 6월말~7월초 통계 포털*을 통해 「OECD Health Statistics」를 발표(19. 7. 2일 발표)

* <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9>,
OECD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

- 건강수준, 건강 위험요인(또는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다양한 주제의 통계를 수록
- OECD는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 통계를 개발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는 삭제하면서 통계 지표를 관리
- 최근 들어 다른 국제기구(WHO, EU 등)와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하여 통계 생산의 효율화 추진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산출(가나다 순)

■ 이용 시 유의점

- 이 책자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통계는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함

* 2017년 수치가 없는 국가는 과거 2개년까지 인접 정보로 대체

- 단,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많은 국가가 2017년 정보를 갖추지 못한바, 2016년을 기준 시점으로 작성
- 장기요양 관련 통계는 각 국가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2012년과 2017년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만 분석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요약표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건강 상태	1. 기대수명(년)	82.7	80.7	84.2	일본 74.8 라트비아
	2. 영아사망률(명/출생아 1,000명)	2.8	3.8	12.1	멕시코 2.0 일본 [16], 핀란드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165.2	200.0	278.8	헝가리 119.5 멕시코
	3-2.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147.4	279.7	646.9	라트비아 [15] 142.4 일본
	3-3.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75.9	66.0	120.6	터키 29.0 라트비아 [15]
	3-4.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12.3	24.3	62.9	영국 0.6 터키
	3-5.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명/인구 100,000명)	24.6	11.7	26.7	리투아니아 2.6 터키
건강 위험요인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15세 이상 인구)	29.5	67.9	88.5	캐나다 29.5 한국
	5. 주류 소비량(순수 알코올 리터, 15세 이상 인구)	8.7	8.9	12.3	리투아니아 1.4 터키
	6. 흡연율(% , 15세 이상 인구)	17.5	16.3	26.5	터키 [16] 7.6 멕시코
보건 의료 자원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 전체 인구)	33.7	59.3	74.2	칠레 [16] 25.9 일본
	8. 총 병원 병상 수(개/인구 1,000명)	12.3	4.7	13.1	일본 1.4 멕시코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개/인구 1,000명)	7.1	3.6	7.8	일본 1.4 멕시코
	10. 암상 의사 수(명/인구 1,000명)	2.3	3.4	5.2	오스트리아 2.3 한국
	11. 암상 간호인력 수(명/인구 1,000명)	6.9	9.0	17.7	노르웨이 2.9 멕시코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대/인구 1,000,000명)	38.2	27.8	111.5	일본 5.8 멕시코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대/인구 1,000,000명)	29.1	17.4	55.2	일본 2.6 멕시코
보건 의료 이용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명/인구 100,000명)	7.6	12.6	24.9	아일랜드 0.0 룩셈부르크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회)	16.6	7.1	16.6	한국 2.8 스웨덴, 멕시코
	16. 국민 1인당 치과외사 외래진료 횟수(회)	1.5	1.3	3.2	일본 [16] 0.2 멕시코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일)	18.5	8.2	28.2	일본 3.7 멕시코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일)	7.5	6.4	16.2	일본 4.1 터키
	19. 제왕절개 건수(건/출생아 1,000명)	451.9	265.7	531.4	터키 148.4 이스라엘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건/인구 100,000명)	7.7	36.5	64.8	덴마크 [16] 4.4 멕시코
보건 의료 비용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7.6	8.8	17.1	미국 4.2 터키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보험 재원 비중(%)	58.9	73.6	85.5	노르웨이 51.5 멕시코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33.7	20.5	41.8	라트비아 9.4 프랑스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US\$ PPP)	2,870	3,854	10,207	미국 1,105 멕시코
약품 시장	26. 의약품 총 판매액(1인당 US\$ PPP)	634.0	472.6	751.5	그리스 90.7 멕시코
장기 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점사 수(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60.9	48.0	82.8	룩셈부르크 4.5 그리스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9(2019. 7. 5. 인출)

주: 의약품 소비량(25)과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28)는 지표의 비교 방식이 다른 통계들과 상이하여 요약표에 제시하지 않음

주요내용(요약)



이 책자는 OECD가 2019년 7월 2일 공표한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2019) 중 주요 지표를 추출하여,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주로 2017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 보다 2.0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 증가하여, OECD 회원국의 증가 수준(0.9년)보다 높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84.2년)이고, 스위스(83.6년), 스페인(83.4년), 이탈리아(83.0년)가 그 뒤를 이음
 - 반면, 라트비아(74.8년), 멕시코(75.4년), 리투아니아(75.6년), 헝가리(75.9년)는 기대수명이 짧은 국가군을 이룸
- 자살에 의한 사망률(2016년)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11.7명)보다 12.9명 높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4.5명 감소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26.7명)임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를 집계한 흡연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4.1%p 하락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7.6%)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26.5%, 2016년)임
- 성별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지만, 남성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음

-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의 2.6배임
 - 총 병원 병상 수는 5년 전(2012년 10.3개)보다 2.0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4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1개)임
-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음(OECD 평균 3.4명)
 - 임상 의사 수는 5년 전(2012년 2.1명)보다 0.2명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2명임
- 임상 간호인력 수(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음
 - 최근 5년간 임상 간호인력 수는 2.1명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7.7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9명)임

주요내용(요약)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OECD 평균 7.1회)
 -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2.3회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슬로바키아(10.9회), 헝가리(10.9회), 일본(12.6회, 2016년)이 있음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OECD 평균 8.2일)
 - 최근 5년간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는 2.4일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8.2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3.7일)임
- 한편, 입원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머문 평균 시간(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은 7.5일로 OECD 평균(6.4일)보다 약간 길
 -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는 전체 평균 재원일수와 반대로, 최근 5년 동안 1.7일이 감소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16.2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터키(4.1일)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OECD 평균(8.8%)보다 낮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7.1%)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4.2%)임
 - 의료를 우리나라의 물가수준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US\$ PPP로 OECD 평균(3,854US\$ PPP)보다 낮음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5년 전(2012년 2,080US\$ PPP)의 1.4배임
-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의무가입보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8.9%로, 우리나라는 멕시코(51.5%), 라트비아(57.3%), 칠레(59.9%)와 함께 강제성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국가군에 속함(OECD 평균 73.6%)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과 침상(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을 모두 집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60.9개로 OECD 평균(48.0개)보다 많음
 - 최근 5년간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는 9.8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2.8개)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그리스(4.5개)임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제1장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
 - 3-1. 암
 - 3-2. 순환기계 질환
 - 3-3. 호흡기계 질환
 - 3-4. 치매
 - 3-5. 자살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I 건강상태

1. 기대수명

-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7년)보다 2.0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0.9년) 수준보다 빠름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4.2년)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4.8년)임
-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에서 기대수명은 상당히 증가함
 -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 요인으로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이 있음

〈표 1〉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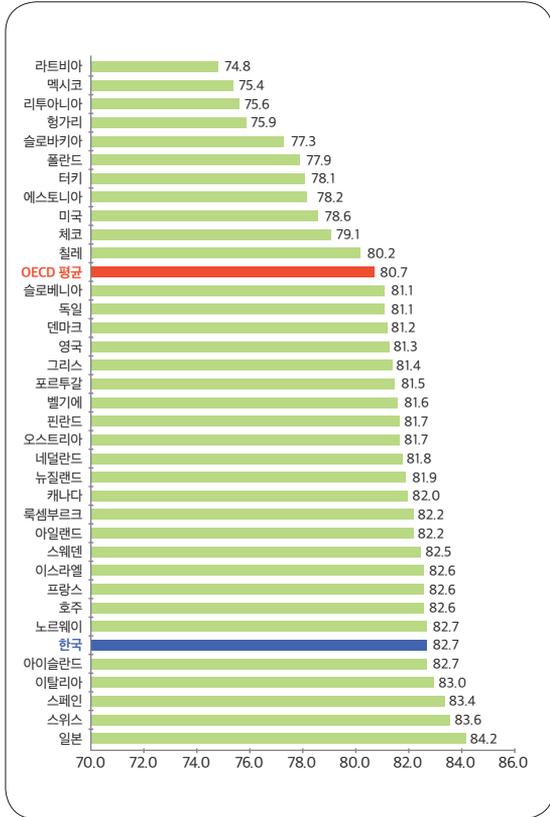
	2012			2017		
	전체 ¹⁾	남자	여자	전체 ¹⁾	남자	여자
호주	82.1	79.9	84.3	82.6	80.5	84.6
오스트리아	81.0	78.4	83.6	81.7	79.4	84.0
벨기에	80.5	77.8	83.1	81.6	79.2	83.9
캐나다	81.5	79.4	83.6	82.0	79.9	84.0
칠레	78.7	76.1	81.3	80.2	77.4	83.1
체코	78.2	75.1	81.2	79.1	76.1	82.0
덴마크	80.1	78.1	82.1	81.2	79.2	83.1
에스토니아	76.5	71.4	81.5	78.2	73.8	82.6
핀란드	80.7	77.7	83.7	81.7	78.9	84.5
프랑스	82.1	78.7	85.4	82.6	79.6	85.6
독일	80.6	78.1	83.1	81.1	78.7	83.4
그리스	80.7	78.0	83.4	81.4	78.8	83.9
헝가리	75.2	71.6	78.7	75.9	72.5	79.3
아이슬란드	83.0	81.6	84.3	82.7	81.1	84.3
아일랜드	80.9	78.7	83.1	82.2	80.4	84.0
이스라엘	81.8	79.9	83.6	82.6	80.6	84.6
이탈리아	82.3	79.8	84.8	83.0	80.8	85.2
일본	83.2	79.9	86.4	84.2	81.1	87.3
한국	80.9	77.6	84.2	82.7	79.7	85.7
라트비아	73.9	68.9	78.9	74.8	69.8	79.7
리투아니아	74.0	68.4	79.6	75.6	70.7	80.5
룩셈부르크	81.5	79.1	83.8	82.2	79.9	84.4
멕시코	74.4	71.4	77.3	75.4	72.9	77.9
네덜란드	81.2	79.3	83.0	81.8	80.2	83.4
뉴질랜드	81.2	79.3	83.0	81.9	80.2	83.6
노르웨이	81.5	79.5	83.5	82.7	81.0	84.3
폴란드	76.9	72.6	81.1	77.9	73.9	81.8
포르투갈	80.5	77.3	83.6	81.5	78.4	84.6
슬로바키아	76.2	72.5	79.9	77.3	73.8	80.7
슬로베니아	80.2	77.1	83.3	81.1	78.2	84.0
스페인	82.5	79.5	85.5	83.4	80.6	86.1
스웨덴	81.8	79.9	83.6	82.5	80.8	84.1
스위스	82.8	80.6	84.9	83.6	81.6	85.6
터키	74.6	72.0	77.2	78.1	75.3	80.8
영국	81.0	79.1	82.8	81.3	79.5	83.1
미국	78.8	76.4	81.2	78.6	76.1	81.1
평균²⁾	79.8	78.1	83.4	80.7	78.1	83.4

주) 1. 전체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임

2.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과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1-1] 기대수명(전체),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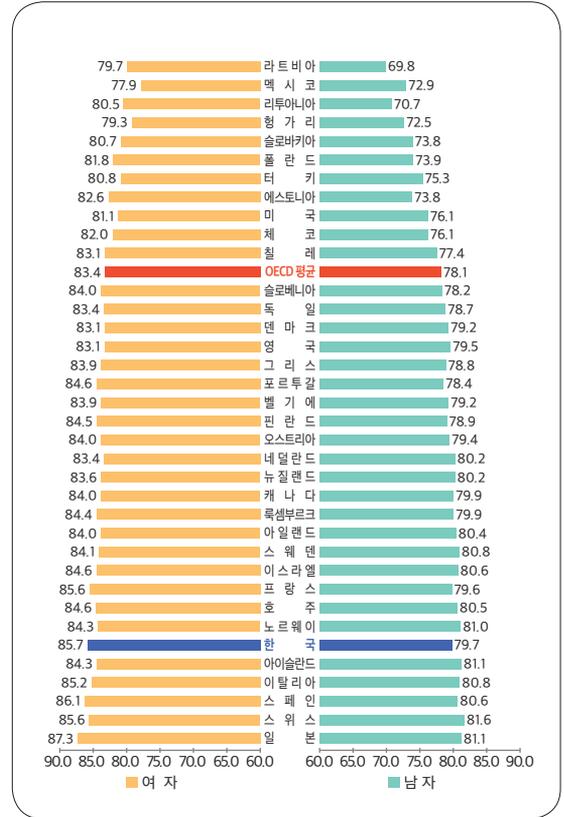
(단위: 년)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칠레는 2016년 수치임

[그림 1-2] 성별 기대수명, 2017년

(단위: 년)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칠레는 2016년 수치임

2. 영아사망률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으로 OECD평균(3.8명)보다 1.0명 낮음
 - 최근 5년간 0.1명(2012년 : 2.9명 → 2017년 : 2.8명) 줄어 들었으며, OECD 평균은 0.3명(2012년 : 4.1명 → 2017년 : 3.8명) 줄어듦
- OECD 회원국의 영아사망률은 멕시코(12.1명), 터키(9.2명), 칠레(7.0명)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OECD 회원국 중에서 13개 국가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 미만으로 낮은 편임
 - 특히, 일본(2016년)과 핀란드는 영아사망률이 1,000명당 2.0명 이하임

〈표 2〉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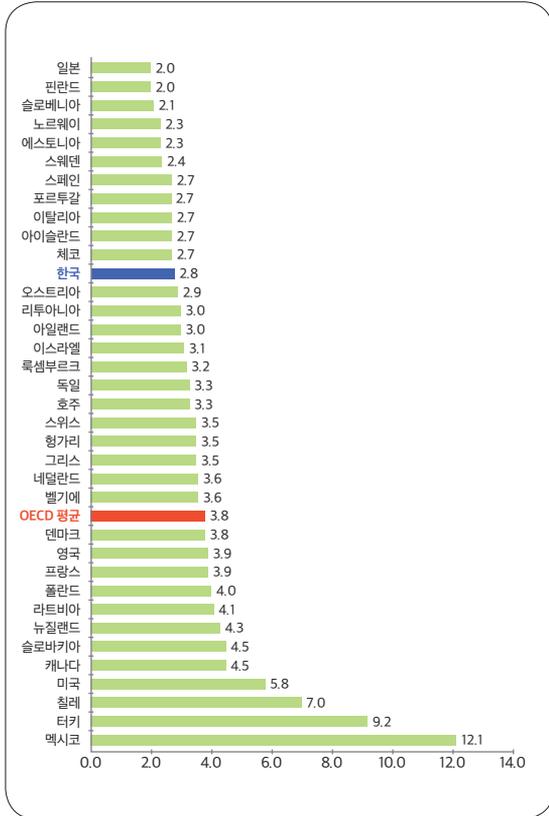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 1,000명)

	2012	2017
호주	3.3	3.3
오스트리아	3.2	2.9
벨기에	3.8	3.6
캐나다	4.8	4.5
칠레	7.4	7.0 (2016)
체코	2.6	2.7
덴마크	3.4	3.8
에스토니아	3.6	2.3
핀란드	2.4	2.0
프랑스	3.3	3.9
독일	3.3	3.3
그리스	2.9	3.5
헝가리	4.9	3.5
아이슬란드	1.1	2.7
아일랜드	3.5	3.0
이스라엘	3.6	3.1
이탈리아	2.9	2.7
일본	2.2	2.0 (2016)
한국	2.9	2.8
라트비아	6.3	4.1
리투아니아	3.9	3.0
룩셈부르크	2.5	3.2
멕시코	13.3	12.1
네덜란드	3.7	3.6
뉴질랜드	4.7	4.3 (2015)
노르웨이	2.5	2.3
폴란드	4.6	4.0
포르투갈	3.4	2.7
슬로바키아	5.8	4.5
슬로베니아	1.6	2.1
스페인	3.1	2.7
스웨덴	2.6	2.4
스위스	3.6	3.5
터키	11.6	9.2
영국	4.0	3.9
미국	6.0	5.8
평균¹⁾	4.1	3.8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과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2-1] 영아사망률,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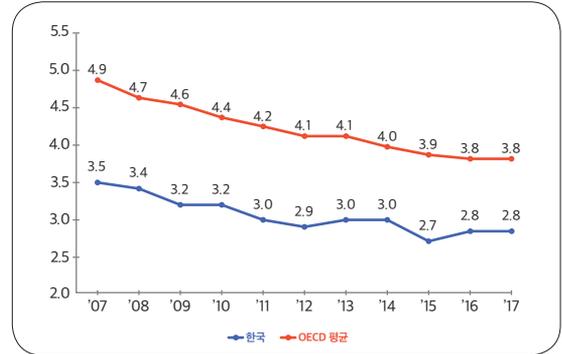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뉴질랜드는 2015년, 칠레, 일본은 2016년 수치임

[그림 2-2] 연도별 영아사망률, 2007~2017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1. 2007~2015년 OECD 평균은 해당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이며, 2016년 OECD 평균은 뉴질랜드를 제외한 당해연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2017년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3. 연령표준화 사망률(2016년 기준)

* 2017년의 사망률 정보를 질병별로 제공한 국가는 5개에 불과하여, 질병별 사망률은 2016년을 기준(혹은 인접 과거년도)으로 비교

-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 측정 산식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3-1. 암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5.2명으로 OECD 평균(200.0명)보다 낮음
- 2012년 183.3명에서 2016년 165.2명으로 18.1명 감소함 (OECD 평균 8.2명 감소)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1.4명이고, 여성의 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10.1명으로 OECD 평균(남성 263.2명, 여성 158.0명)보다 낮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의 차이는 2.3배로 터키와 함께 남녀 암 사망률의 차이가 큰 편임

<표 3-1> 임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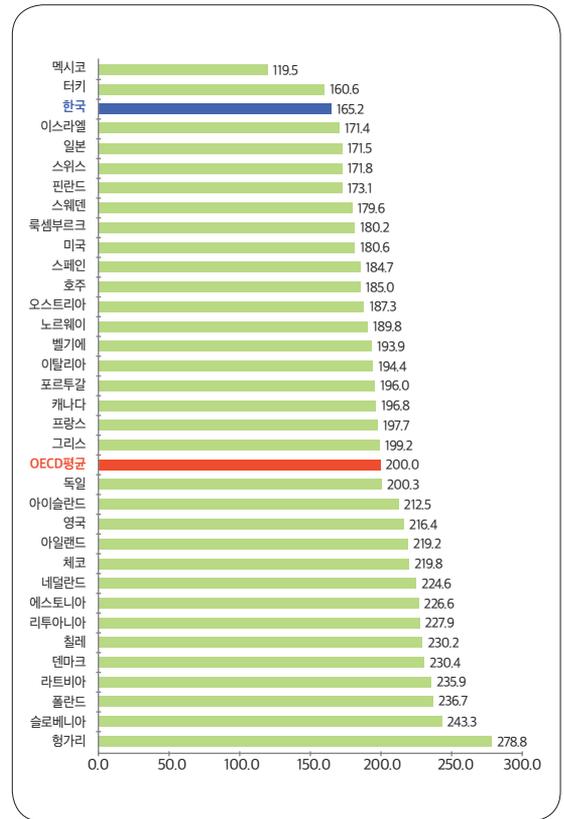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93.1	245.1	153.4	185.0	231.3	148.3
오스트리아	201.9	259.4	164.0	187.3	235.2	153.5
벨기에	207.0	276.0	158.8	193.9	252.9	151.3
캐나다	205.6	246.9	176.0	196.8	233.9	170.3 (2015)
칠레	201.8	250.6	169.6	230.2	296.4	189.1
체코	236.6	313.8	184.7	219.8	291.2	171.5
덴마크	246.1	293.3	214.4	230.4	276.0	198.9 (2015)
에스토니아	233.3	367.6	168.3	226.6	348.5	167.2
핀란드	176.5	225.9	145.1	173.1	219.4	142.6
프랑스	201.2	278.3	145.4	197.7	276.7	144.2 (2015)
독일	201.6	255.7	162.8	200.3	252.7	162.7
그리스	198.2	272.6	138.8	199.2	268.2	144.0
헝가리	293.3	407.4	220.6	278.8	383.9	212.0
아이슬란드	202.7	232.5	180.1	212.5	238.8	194.1
아일랜드	228.7	279.1	193.0	219.2	266.2	185.8 (2015)
이스라엘	183.8	215.1	160.7	171.4	198.2	151.4
이탈리아	205.4	276.9	156.0	194.4	256.2	150.8 (2015)
일본	181.1	258.2	127.2	171.5	239.8	123.3
한국	183.3	288.4	117.7	165.2	251.4	110.1
라트비아	244.7	385.4	176.1	235.9	354.1	178.1 (2015)
리투아니아	226.5	352.9	159.0	227.9	349.4	161.7
룩셈부르크	205.5	260.2	167.2	180.2	236.0	138.5
멕시코	120.2	135.8	109.6	119.5	132.7	109.2
네덜란드	235.0	297.4	193.3	224.6	277.8	188.1
뉴질랜드	209.9	249.8	179.9	-	-	-
노르웨이	204.2	254.7	171.3	189.8	229.8	162.7
폴란드	240.6	335.8	181.4	236.7	327.9	179.8
포르투갈	196.7	282.6	136.2	196.0	281.3	135.2
슬로바키아	254.7	365.7	185.9	-	-	-
슬로베니아	242.3	341.9	181.3	243.3	336.9	183.9 (2015)
스페인	194.1	281.5	129.2	184.7	262.5	126.2
스웨덴	188.3	224.1	164.6	179.6	212.5	157.3
스위스	177.7	229.9	142.5	171.8	217.9	140.0
터키	155.5	228.3	99.1	160.6	236.0	102.3
영국	225.8	273.5	192.5	216.4	259.5	184.7
미국	192.5	232.9	163.4	180.6	216.2	154.5
평균 ¹⁾	208.2	277.1	163.0	200.0	263.2	158.0

주) 1. 2012년과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6년 34개국의 평균임

[그림 3-1] 임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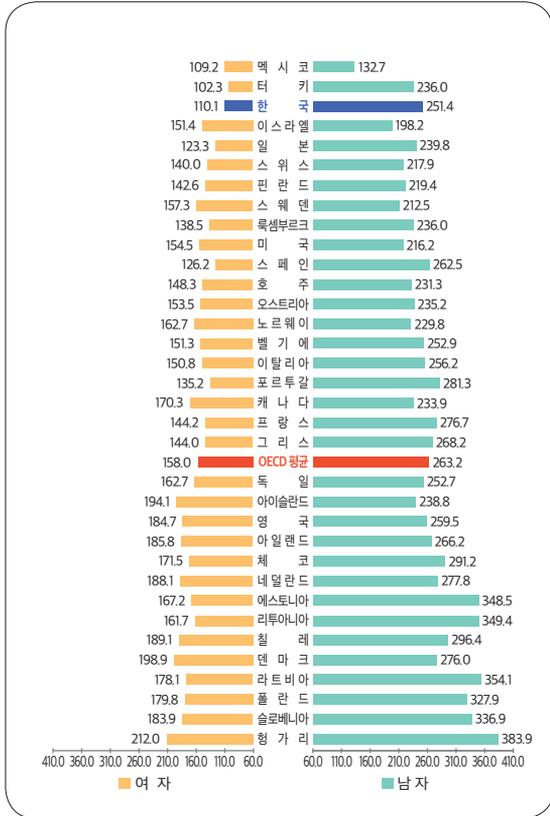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그림 3-2] 성별 임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3-2. 순환기계 질환

-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7.4명으로 OECD 평균(279.7명)보다 낮음
- 2012년 179.1명에서 2016년 147.4명으로 31.7명 감소함 (OECD 평균 28.6명 감소)
-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가장 높은 국가(라트비아 646.9명, 2015년)와 가장 낮은 국가(일본 142.4명)는 4.5배가량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의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표 3-2>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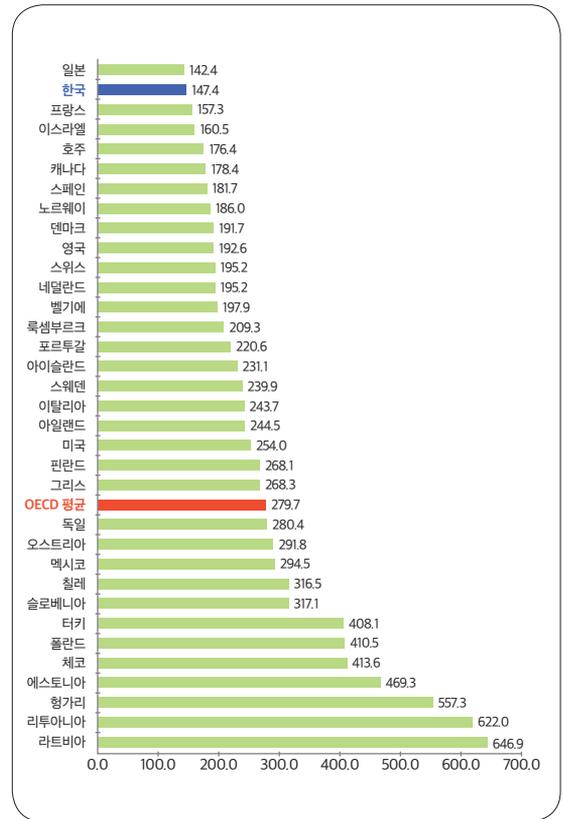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98.0	228.5	170.8	176.4	205.9	150.1
오스트리아	322.5	372.1	283.2	291.8	338.6	253.8
벨기에	228.4	275.3	192.5	197.9	236.3	167.3
캐나다	182.8	223.9	148.6	178.4	216.0	147.1 (2015)
칠레	240.8	291.0	201.3	316.5	364.9	279.4
체코	504.7	604.2	431.1	413.6	501.3	347.8
덴마크	212.2	259.9	175.0	191.7	233.8	157.8 (2015)
에스토니아	542.5	716.6	436.5	469.3	609.0	381.8
핀란드	305.6	393.6	240.3	268.1	347.8	207.0
프랑스	164.4	209.5	131.8	157.3	210.9	122.7 (2015)
독일	308.6	349.6	269.5	280.4	328.6	239.4
그리스	337.4	378.4	298.3	268.3	307.3	232.0
헝가리	603.4	736.9	513.2	557.3	688.2	466.8
아이슬란드	227.6	260.1	199.5	231.1	299.9	178.4
아일랜드	267.8	325.0	220.8	244.5	295.4	201.1 (2015)
이스라엘	176.6	205.2	153.0	160.5	185.1	140.0
이탈리아	255.0	302.4	219.3	243.7	285.4	210.8 (2015)
일본	165.5	209.8	130.7	142.4	181.0	111.0
한국	179.1	214.7	154.1	147.4	174.7	126.1
라트비아	685.2	909.8	551.7	646.9	834.8	528.0 (2015)
리투아니아	665.7	860.8	540.2	622.0	812.4	502.4
룩셈부르크	237.5	281.0	200.2	209.3	248.7	178.0
멕시코	273.8	312.6	241.5	294.5	329.0	264.1
네덜란드	213.2	255.6	180.6	195.2	227.8	168.5
뉴질랜드	250.7	286.2	217.4	-	-	-
노르웨이	232.1	277.0	194.7	186.0	219.9	157.6
폴란드	483.3	608.1	394.6	410.5	510.7	336.5
포르투갈	242.0	280.3	212.6	220.6	262.4	188.0
슬로바키아	534.2	637.8	459.4	-	-	-
슬로베니아	328.3	373.6	291.8	317.1	354.8	281.0 (2015)
스페인	204.3	241.1	173.3	181.7	218.7	150.5
스웨덴	277.0	336.1	230.6	239.9	286.1	201.0
스위스	222.3	267.2	188.2	195.2	232.0	166.8
터키	348.6	394.4	310.3	408.1	467.4	360.3
영국	218.1	263.1	181.2	192.6	235.7	156.2
미국	258.3	312.2	214.9	254.0	307.6	209.9
평균 ¹⁾	308.3	373.7	259.8	279.7	339.9	234.4

주) 1. 2012년과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6년 34개국의 평균임

[그림 3-3]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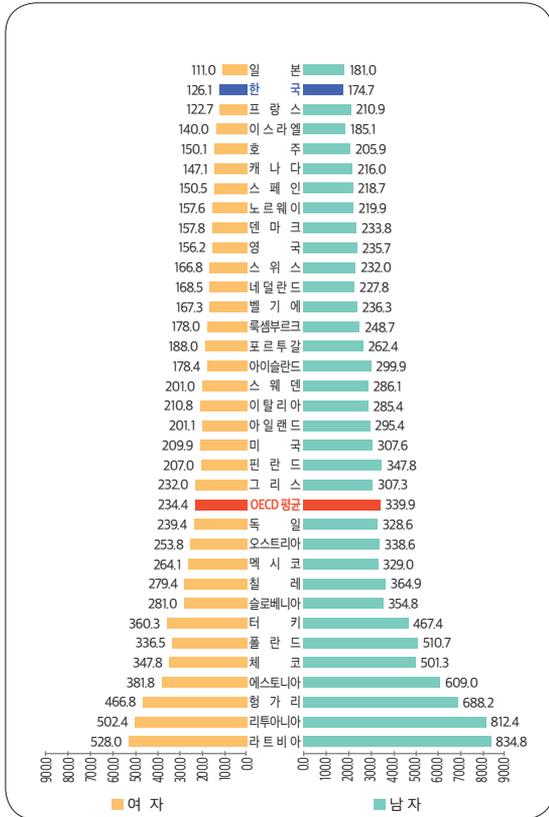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그림 3-4] 성별 순환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3-3. 호흡기계 질환

-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5.9명으로 OECD 평균(66.0명)보다 높음
- 2012년 75.3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0.6명 증가함 (OECD 평균 0.2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라트비아(29.0명, 2015년)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120.6명)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1.2명이고, 여성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52.4명으로 OECD 평균(남성 88.5명, 여성 51.9명)보다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호흡기계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차이는 2.3배임

<표 3-3>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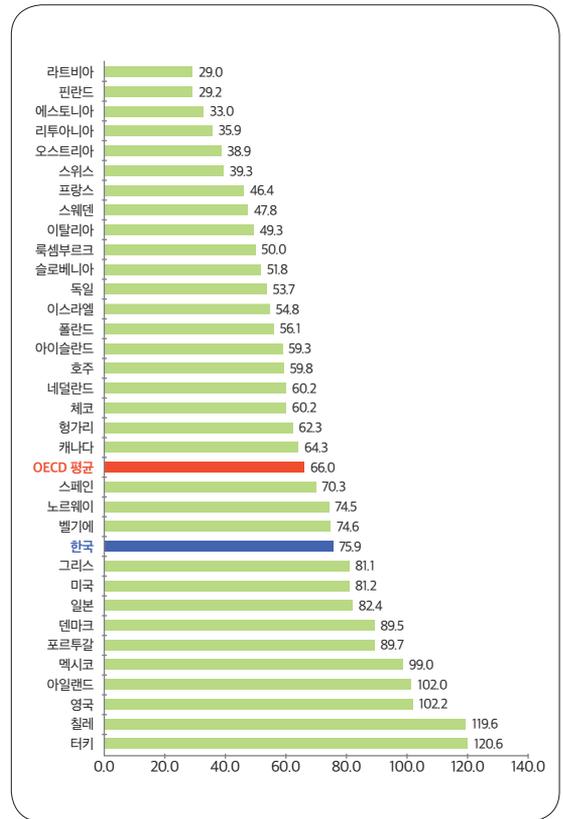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0.1	75.2	49.7	59.8	71.0	51.4
오스트리아	38.3	54.9	28.2	38.9	53.2	29.6
벨기에	82.3	115.3	61.9	74.6	103.1	56.0
캐나다	61.0	77.2	50.3	64.3	78.3	54.8 (2015)
칠레	93.1	115.3	78.3	119.6	143.7	104.1
체코	54.4	78.2	39.7	60.2	85.7	43.4
덴마크	92.6	108.7	83.4	89.5	106.5	78.6 (2015)
에스토니아	29.1	58.8	13.4	33.0	61.1	18.6
핀란드	30.3	49.4	19.0	29.2	44.1	19.7
프랑스	44.0	61.9	32.8	46.4	67.6	34.3 (2015)
독일	53.4	73.9	40.0	53.7	73.4	40.6
그리스	76.1	92.2	64.1	81.1	95.7	69.6
헝가리	62.0	94.9	43.9	62.3	92.5	45.1
아이슬란드	52.9	45.5	58.9	59.3	61.2	58.3
아일랜드	100.4	123.5	85.5	102.0	123.6	88.0 (2015)
이스라엘	58.3	71.6	48.4	54.8	66.8	45.6
이탈리아	47.9	72.0	33.7	49.3	70.5	36.4 (2015)
일본	91.2	145.4	59.5	82.4	131.7	52.4
한국	75.3	122.1	52.4	75.9	121.2	52.4
라트비아	30.0	60.3	14.0	29.0	58.2	14.3 (2015)
리투아니아	36.0	72.9	16.8	35.9	66.9	18.8
룩셈부르크	54.5	69.2	45.1	50.0	64.0	40.7
멕시코	89.7	113.8	71.9	99.0	117.6	83.8
네덜란드	80.6	110.2	64.0	60.2	76.7	50.3
뉴질랜드	68.4	80.2	60.6	-	-	-
노르웨이	77.2	95.9	65.9	74.5	89.5	64.9
폴란드	54.2	87.7	35.6	56.1	86.9	38.0
포르투갈	102.1	140.1	78.7	89.7	127.6	66.2
슬로바키아	67.1	106.0	45.3	-	-	-
슬로베니아	60.9	93.5	45.8	51.8	75.1	39.7 (2015)
스페인	78.4	117.3	53.1	70.3	103.6	48.2
스웨덴	49.6	60.0	43.3	47.8	55.8	42.8
스위스	40.5	56.6	30.8	39.3	53.8	29.9
터키	88.5	128.9	61.2	120.6	167.7	88.4
영국	107.1	127.9	93.1	102.2	120.6	89.0
미국	82.2	97.3	72.1	81.2	94.5	71.9
평균 ¹⁾	65.8	90.4	51.1	66.0	88.5	51.9

주) 1. 2012년과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6년은 34개국의 평균임

[그림 3-5]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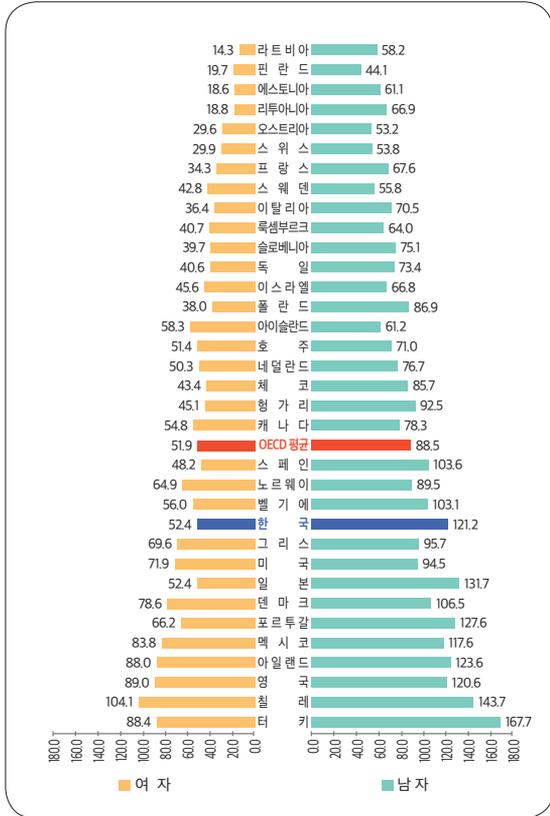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그림 3-6] 성별 호흡기계 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3-4. 치매

-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3명으로 OECD 평균(24.3명)보다 낮음
- 2012년 17.4명에서 2016년 12.3명으로 5.1명 감소함(OECD 평균 3.9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0.6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62.9명)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2015년), 아이슬란드,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표 3-4>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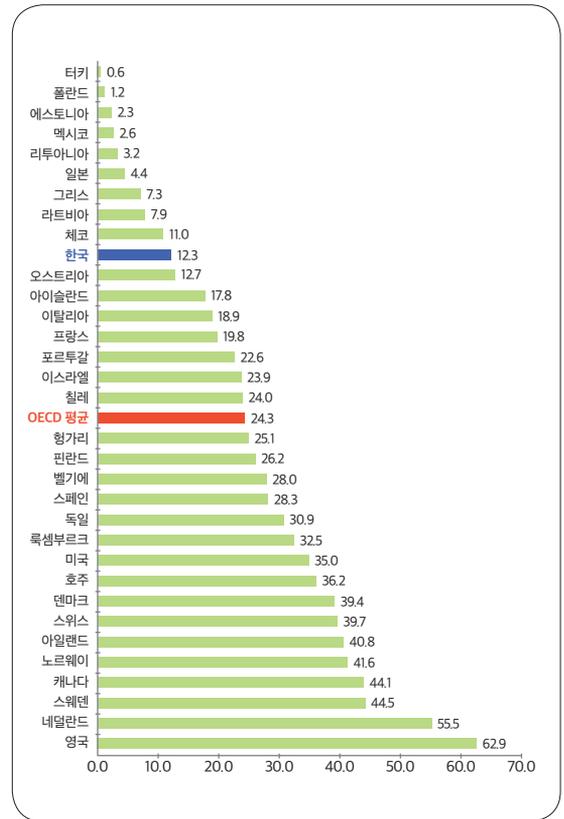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32.7	29.0	34.6	36.2	33.2	37.8
오스트리아	5.1	4.8	5.1	12.7	11.4	13.3
벨기에	26.9	25.6	27.2	28.0	26.2	28.7
캐나다	36.3	33.2	37.6	44.1	41.2	45.3 (2015)
칠레	22.1	19.2	23.4	24.0	22.2	24.9
체코	7.6	7.8	7.4	11.0	11.6	10.5
덴마크	36.3	32.1	38.2	39.4	36.4	40.7 (2015)
에스토니아	1.9	2.7	1.5	2.3	2.3	2.2
핀란드	29.1	26.2	29.7	26.2	24.6	26.4
프랑스	17.0	17.3	16.7	19.8	21.8	18.6 (2015)
독일	21.0	18.4	21.8	30.9	28.0	31.9
그리스	0.6	0.5	0.7	7.3	5.7	8.4
헝가리	23.5	22.7	23.7	25.1	24.6	25.1
아이슬란드	17.0	19.6	15.5	17.8	18.4	17.3
아일랜드	27.8	27.4	27.7	40.8	37.8	42.3 (2015)
이스라엘	19.6	16.6	21.4	23.9	20.3	25.9
이탈리아	16.7	14.8	17.4	18.9	16.8	19.8 (2015)
일본	3.8	3.2	4.0	4.4	3.7	4.6
한국	17.4	16.6	17.5	12.3	12.5	11.9
라트비아	5.4	5.0	5.4	7.9	5.3	8.5 (2015)
리투아니아	1.6	1.7	1.5	3.2	2.9	3.2
룩셈부르크	27.2	24.2	28.4	32.5	34.9	31.8
멕시코	2.6	2.6	2.6	2.6	2.5	2.8
네덜란드	45.5	36.3	49.8	55.5	49.5	58.1
뉴질랜드	30.4	25.8	32.6	-	-	-
노르웨이	33.8	28.2	36.5	41.6	35.6	44.7
폴란드	0.3	0.3	0.3	1.2	1.4	1.1
포르투갈	0.0	0.1	0.0	22.6	24.1	21.8
슬로바키아	20.0	19.9	19.9	-	-	-
슬로베니아	0.0	0.1	0.1 (2011)	-	-	-
스페인	26.2	24.1	26.9	28.3	26.4	29.0
스웨덴	41.5	35.4	44.5	44.5	40.2	46.6
스위스	40.9	36.4	42.8	39.7	34.9	42.0
터키	0.8	0.9	0.7	0.6	0.6	0.5
영국	51.5	44.8	54.7	62.9	56.1	66.5
미국	44.0	38.5	46.8	35.0	30.6	37.3
평균¹⁾	20.4	18.4	21.2	24.3	22.5	25.1

주) 1. 2012년과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6년은 33개국의 평균임

[그림 3-7]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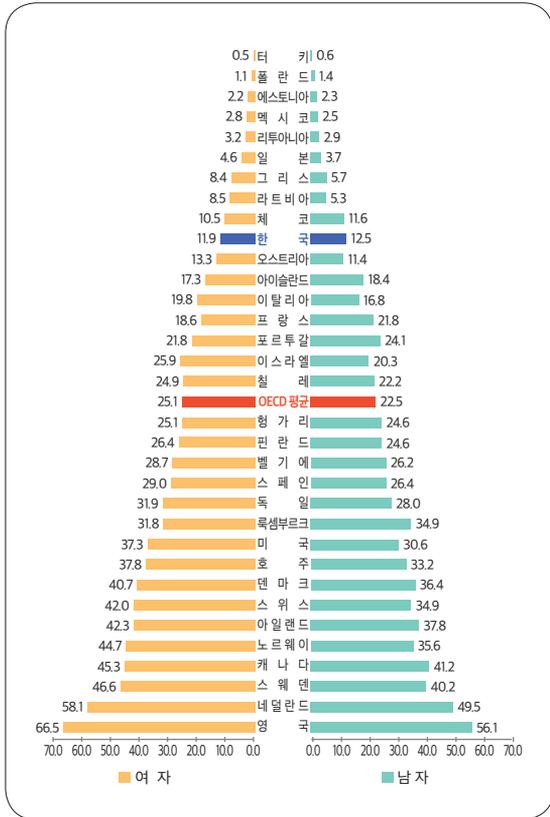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는 2015년 수치임

[그림 3-8] 성별 치매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는 2015년 수치임

3-5. 자살

-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11.7명)보다 12.9명 높음
- 2012년 29.1명에서 2016년 24.6명으로 4.5명 감소함 (OECD 평균 1.1명 감소)
 -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8.7	29.0	33.8	33.5	33.3	29.1	28.7	26.7	25.8	24.6
남성	41.9	41.9	48.3	49.6	50.0	43.2	43.3	40.1	39.5	37.4
여성	19.3	19.4	22.8	21.4	20.2	17.8	16.8	15.4	14.7	14.1

-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26.7명)임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4명이고, 여성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4.1명으로 OECD 평균(남성 19.0명, 여성 5.2명)보다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높음

<표 3-5>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1.4	17.4	5.7	11.9	18.2	5.8
오스트리아	13.7	23.1	5.7	12.2	19.9	5.8
벨기에	17.4	26.7	9.0	15.9	23.6	8.8
캐나다	10.8	16.6	5.2	11.8	17.8	6.1 (2015)
칠레	11.0	19.0	3.7	10.7	18.8	3.5
체코	14.7	26.0	4.7	11.7	19.9	4.5
덴마크	11.3	17.5	5.4	9.4	13.4	5.6 (2015)
에스토니아	16.6	30.7	5.3	13.0	23.5	4.6
핀란드	15.6	24.2	7.6	13.9	22.2	6.0
프랑스	14.6	23.6	6.8	13.1	21.8	5.8 (2015)
독일	10.5	16.4	5.2	10.2	16.3	4.9
그리스	4.2	7.1	1.5	4.0	7.0	1.4
헝가리	22.0	38.0	9.1	16.2	27.5	7.3
아이슬란드	11.6	16.6	7.0	12.1	21.5	2.4
아일랜드	12.1	20.2	4.2	9.3	15.0	3.9 (2015)
이스라엘	6.4	10.9	2.3	5.4	9.4	1.8
이탈리아	6.3	10.5	2.6	5.7	9.4	2.4 (2015)
일본	19.1	27.8	10.8	15.2	22.1	8.6
한국	29.1	43.2	17.8	24.6	37.4	14.1
라트비아	20.5	38.9	5.6	18.1	33.0	6.3 (2015)
리투아니아	29.5	53.9	9.4	26.7	50.9	7.1
룩셈부르크	9.4	14.8	4.3	7.2	11.0	3.5
멕시코	4.9	8.3	1.7	5.4	9.5	1.8
네덜란드	10.0	14.0	6.3	10.5	14.6	6.6
뉴질랜드	12.5	18.8	6.4	-	-	-
노르웨이	10.2	14.7	5.8	11.6	15.8	7.4
폴란드	15.8	29.0	3.8	11.6	21.4	2.8
포르투갈	9.0	16.0	3.2	8.1	13.8	3.4
슬로바키아	10.2	19.1	2.4	-	-	-
슬로베니아	19.3	34.2	6.8	18.1	30.9	7.3 (2015)
스페인	6.9	11.2	3.1	6.8	10.7	3.4
스웨덴	11.6	16.8	6.8	11.1	15.4	6.8
스위스	12.0	18.4	6.4	11.2	17.3	5.6
터키	2.1	3.3	1.1	2.6	4.1	1.1
영국	6.9	11.2	2.8	7.3	11.4	3.3
미국	13.0	21.2	5.5	13.9	22.2	6.2
평균¹⁾	12.8	21.1	5.6	11.7	19.0	5.2

주) 1. 2012년과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6년은 34개국의 평균임

[그림 3-9]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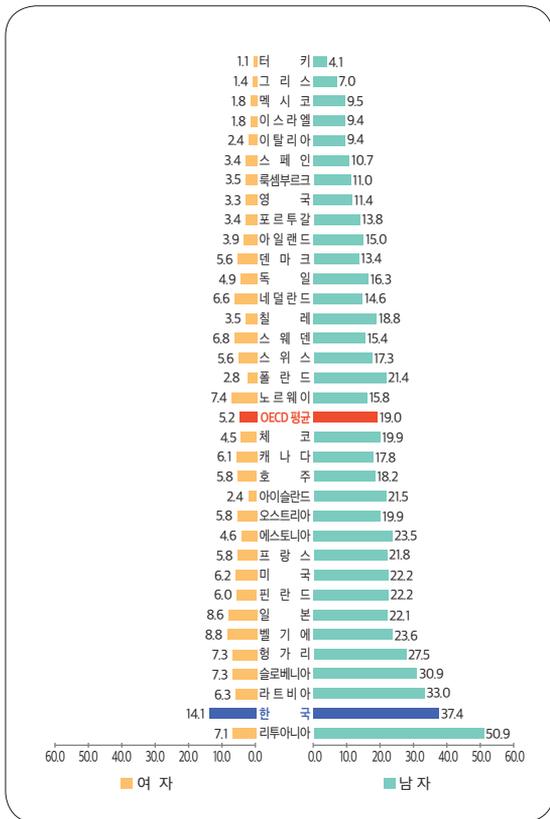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그림 3-10] 성별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6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6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4개국의 평균임
 2.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는 2015년 수치임

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은,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평균(67.9%)보다 낮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29.5%), 일본(35.5%, 2016년), 리투아니아(43.7%), 라트비아(44.2%), 포르투갈(48.8%)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캐나다(88.5%), 뉴질랜드(88.2%), 미국(87.9%)은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33.5%이고, 여성은 25.6%로 OECD 평균(남성 70.4%, 여성 65.7%)보다 낮음
 -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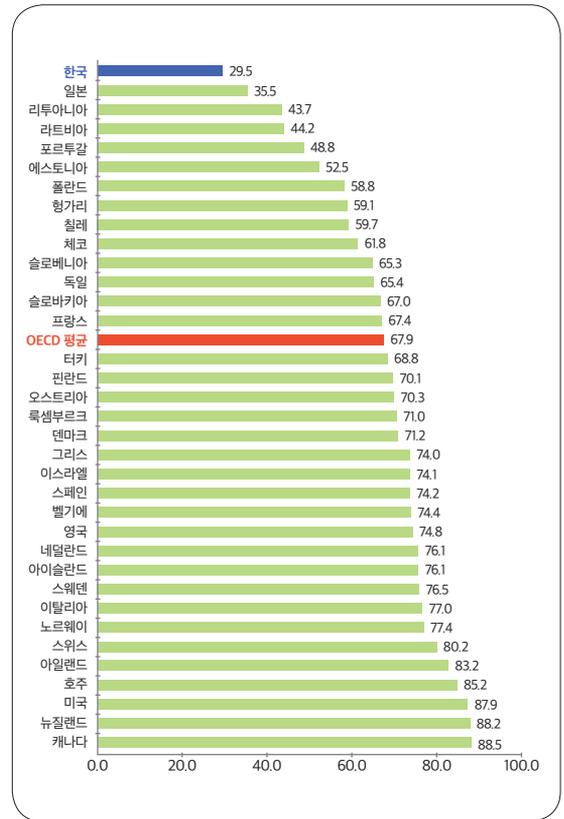
(단위: %)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5.4	85.4	85.4 (2011)	85.2	84.8	85.6
오스트리아	70.0	71.7	68.4	70.3	72.0	68.7
벨기에	74.5	76.9	72.2	74.4	77.6	71.3
캐나다	88.8	89.3	88.3	88.5	89.1	87.9
칠레	-	-	-	59.7	64.1	56.0
체코	60.4	63.1	58.4	61.8	63.8	60.4
덴마크	71.0	72.1	70.0	71.2	73.1	69.3
에스토니아	52.4	54.9	50.6	52.5	55.5	50.4
핀란드	67.1	68.3	66.0	70.1	71.7	68.5
프랑스	68.1	70.4	65.9	67.4	69.2	65.7
독일	65.4	67.0	63.8	65.4	67.1	63.8
그리스	74.9	77.8	72.1	74.0	76.8	71.4
헝가리	57.0	61.5	53.1	59.1	63.5	55.3
아이슬란드	76.8	79.0	74.7	76.1	78.9	73.2 (2016)
아일랜드	82.8	83.0	82.7	83.2	82.9	83.5
이스라엘	83.5	85.9	81.2	74.1	75.6	72.8
이탈리아	68.0	71.7	64.7	77.0	80.1	74.1
일본	30.0	31.5	28.6 (2010)	35.5	37.0	34.1 (2016)
한국	33.3	38.4	28.2	29.5	33.5	26.6
라트비아	46.7	51.2	43.0	44.2	50.0	39.6
리투아니아	44.3	50.0	40.4	43.7	49.4	40.1
룩셈부르크	73.8	75.1	72.4	71.0	72.6	69.5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5.6	79.4	72.1	76.1	79.0	73.2
뉴질랜드	89.3	89.6	88.9	88.2	88.1	88.3
노르웨이	78.7	79.8	77.6	77.4	78.7	76.2
폴란드	57.7	61.6	54.3	58.8	62.3	56.0
포르투갈	48.0	54.0	42.7	48.8	53.9	44.3
슬로바키아	65.7	71.0	60.7	67.0	71.0	63.2
슬로베니아	63.1	66.7	59.7	65.3	68.6	62.0
스페인	74.3	77.2	71.5	74.2	76.8	71.7
스웨덴	79.6	81.7	77.5	76.5	78.3	74.7
스위스	81.9	84.0	79.9	80.2	81.8	78.6
터키	68.6	73.5	63.8	68.8	73.5	64.1
영국	74.7	76.4	73.2	74.8	76.3	73.4
미국	87.5	88.4	86.7	87.9	88.4	87.3
평균¹⁾	68.2	70.8	65.8	67.9	70.4	65.7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는 34개국, 2017년은 35개국 평균임

[그림 4-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전체),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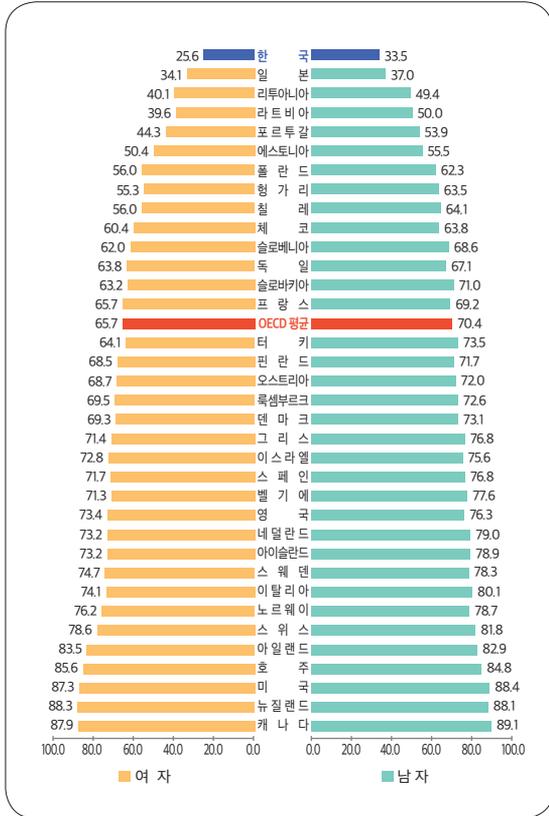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란드, 일본은 2016년 수치임

[그림 4-2] 성별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2017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아이슬란드, 일본은 2016년 수치임



건강 위험요인

- 5. 주류 소비량
- 6. 흡연율
-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건강 위험요인

5. 주류 소비량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을 8.7리터로 OECD 평균(8.9리터)과 비슷한 수준임
- 주류 소비량은 2012년 9.1리터에서 2017년 8.7리터로 0.4리터 감소함(OECD 평균 0.3리터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1.4리터)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12.3리터)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14개 국가에서 연간 1인당 10리터 이상의 주류를 소비하고 있음

〈표 5〉 주류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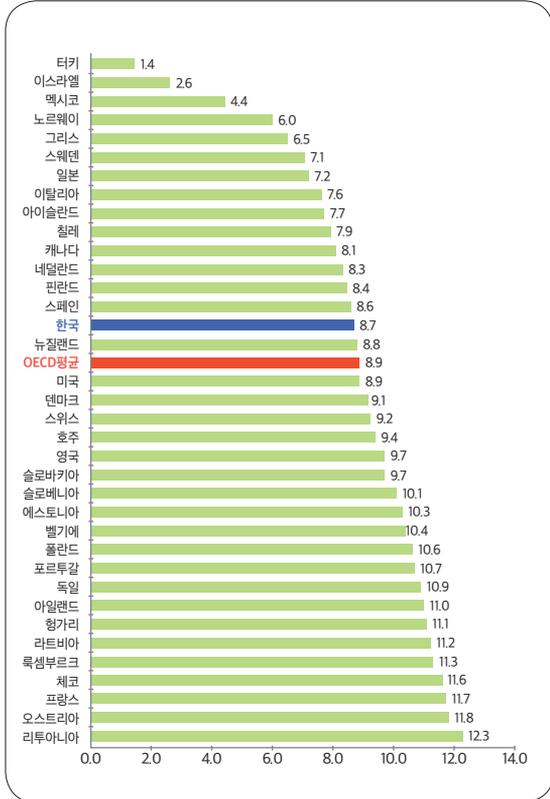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2012	2017
호주	9.9	9.4 (2016)
오스트리아	12.4	11.8 (2016)
벨기에	10.1	10.4 (2015)
캐나다	8.3	8.1
칠레	8.3	7.9 (2016)
체코	11.6	11.6
덴마크	9.3	9.1
에스토니아	12.1	10.3
핀란드	9.3	8.4
프랑스	12.2	11.7
독일	11.8	10.9 (2016)
그리스	7.6	6.5 (2016)
헝가리	11.1	11.1 (2016)
아이슬란드	6.8	7.7
아일랜드	11.5	11.0
이스라엘	2.8	2.6 (2016)
이탈리아	7.5	7.6 (2016)
일본	7.2	7.2
한국	9.1	8.7
라트비아	10.2	11.2 (2016)
리투아니아	14.7	12.3
룩셈부르크	12.0	11.3 (2016)
멕시코	3.9	4.4 (2016)
네덜란드	9.1	8.3
뉴질랜드	9.2	8.8
노르웨이	6.2	6.0
폴란드	10.2	10.6
포르투갈	10.9	10.7 (2016)
슬로바키아	10.1	9.7
슬로베니아	11.0	10.1
스페인	8.8	8.6 (2016)
스웨덴	7.2	7.1
스위스	9.9	9.2
터키	1.6	1.4
영국	9.6	9.7
미국	8.9	8.9 (2016)
평균¹⁾	9.2	8.9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과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5-1] 주류 소비량,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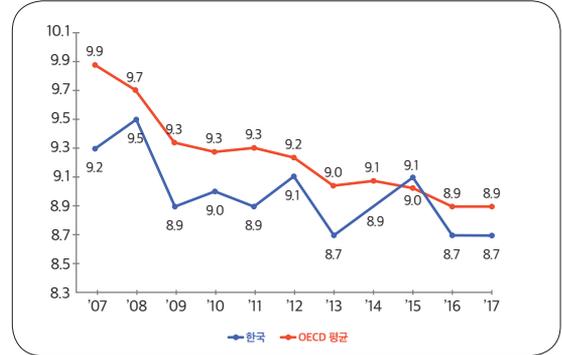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은 2016년, 벨기에에는 2015년 수치임

[그림 5-2] 연도별 주류소비량, 2007~2017년

(단위: 순수 알코올 리터)



주) 1. 2007~2015년 OECD 평균은 해당연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이며, 2016년 OECD 평균은 벨기에를 제외한 2016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2017년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6. 흡연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 (흡연율)은 17.5%로 OECD 평균(16.3%)보다 높음
- 흡연율은 2012년 21.6%에서 2017년 17.5%로 4.1%p 하락함(OECD 평균 2.5%p 하락)
- OECD 회원국 중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 (7.6%)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26.5%, 2016년)임
- 성별에 따른 흡연율을 살펴보면, 여성 흡연율은 3.5%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지만, 남성은 31.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음(OECD 평균 여성 12.7%, 남성 20.2%)

〈표 6〉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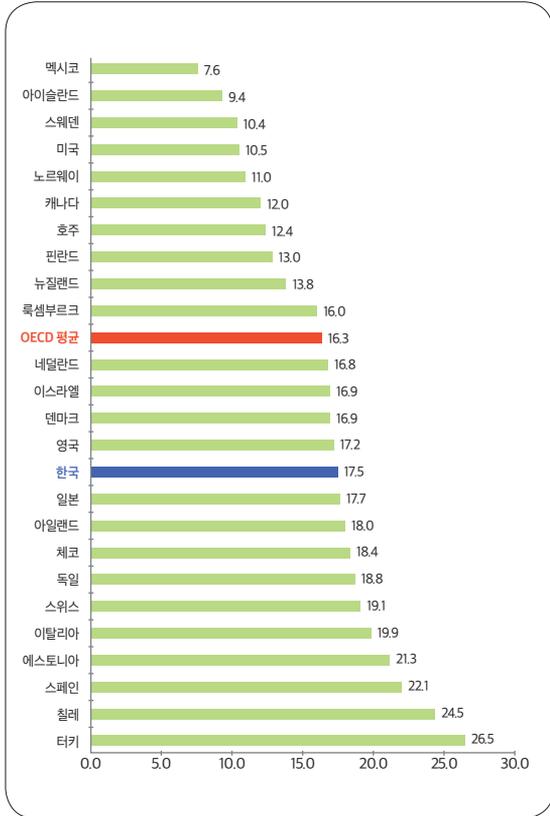
(단위: %)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5.4	16.7	14.1 (2010)	12.4	14.0	10.8 (2016)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16.1	18.7	13.5	12.0	14.2	10.0
칠레	-	-	-	24.5	28.2	20.9 (2016)
체코	22.9	26.3	19.6	18.4	22.6	14.5
덴마크	20.9	22.7	19.3 (2010)	16.9	18.5	14.5
에스토니아	26.0	36.2	18.3	21.3	29.9	15.5 (2016)
핀란드	17.0	20.9	14.0	13.0	15.0	12.0
프랑스	24.1	28.7	20.2	-	-	-
독일	-	-	-	18.8	22.3	15.3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13.8	14.9	12.8	9.4	9.1	9.7
아일랜드	-	-	-	18.0	20.0	17.0
이스라엘	18.5	24.8	12.6 (2010)	16.9	21.3	12.8
이탈리아	22.1	28.1	16.5	19.9	25.1	15.0
일본	20.7	34.1	9.0	17.7	29.4	7.2
한국	21.6	37.6	5.8	17.5	31.6	3.5
라트비아	-	-	-	-	-	-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16.8	18.4	15.2	16.0	18.1	14.0
멕시코 ¹⁾	10.3	15.5	5.5 (2011)	7.6	12.0	3.6
네덜란드	18.4	20.6	16.3	16.8	19.5	14.1
뉴질랜드	16.3	16.7	15.8	13.8	15.1	12.6
노르웨이	16.0	16.0	16.0	11.0	12.0	10.0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23.9	27.9	20.2 (2011)	22.1	25.6	18.8
스웨덴	12.8	12.4	13.1	10.4	10.5	10.3
스위스	20.4	23.1	17.8	19.1	21.5	16.8
터키	23.8	37.3	10.7	26.5	40.1	13.3 (2016)
영국	20.0	22.0	19.0	17.2	19.1	15.5
미국	14.2	15.9	12.5	10.5	11.5	9.5
평균²⁾	18.8	23.3	14.7	16.3	20.2	12.7

주) 1. 멕시코는 2012년의 경우 전체 수치만 있기 때문에, 인접 과거년도인 2011년 수치를 제시함
 2.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23개국, 2017년은 25개국의 평균임

[그림 6-1] 흡연율(전체),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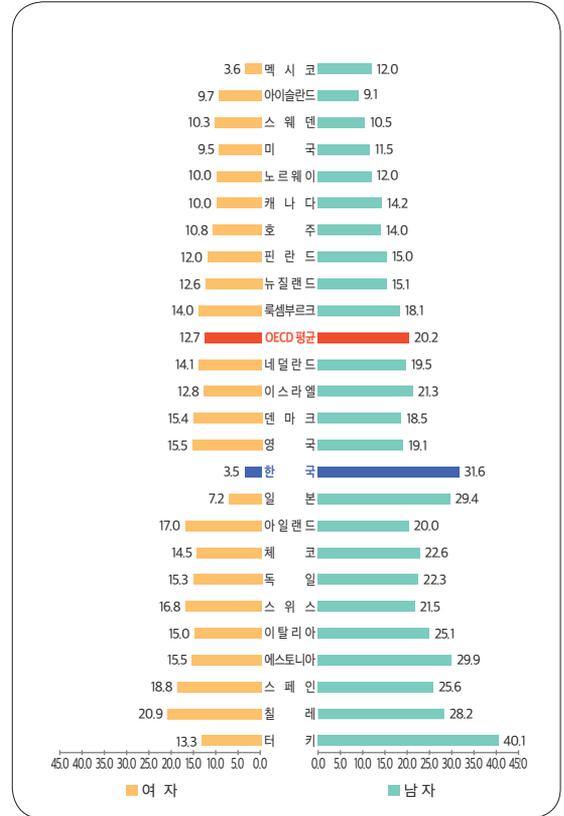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5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터키는 2016년 수치임

[그림 6-2] 성별 흡연율, 2017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5개국의 평균임
 2. 호주, 칠레, 에스토니아, 터키는 2016년 수치임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을

-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OECD 평균(59.3%)보다 낮음
- 과체중 또는 비만율은 2012년 31.8%에서 2017년 33.7%로 1.9%p 상승함(OECD 평균 3.1%p 상승)
- OECD 회원국 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5.9%)이고,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74.2%)임
- 과체중 또는 비만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39.7%, 여성 27.7%로 남녀 모두 OECD 평균(남성 62.5%, 여성 56.1%)보다 낮음
 - 칠레(2016년), 멕시코(2016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과체중 또는 비만율이 높음

〈표 7〉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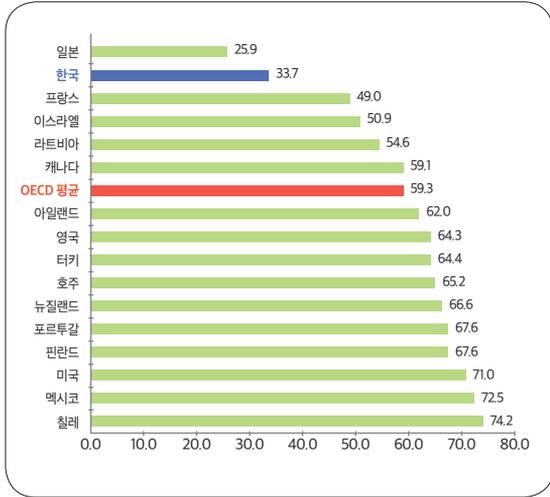
(단위: %)

	2012			201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3.4	70.3	56.2 (2011)	65.2	72.4	58.3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58.6	64.8	52.5 (2010)	59.1	63.7	54.4
칠레	-	-	-	74.2	73.6	74.9 (2016)
체코	55.0	61.0	49.0 (2010)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58.0	66.2	50.0	67.6	71.9	63.2
프랑스	-	-	-	49.0	53.9	44.2 (2015)
독일	60.0	67.1	52.9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62.0	70.0	54.0
이스라엘	-	-	-	50.9	55.1	46.4 (2015)
이탈리아	-	-	-	-	-	-
일본	23.7	29.1	19.4	25.9	30.7	21.9
한국	31.8	34.8	28.7	33.7	39.7	27.7
라트비아	-	-	-	54.6	56.2	53.2 (2016)
리투아니아	-	-	-	-	-	-
룩셈부르크	59.2	66.8	49.7	-	-	-
멕시코	71.3	69.4	73.0	72.5	69.4	75.6 (2016)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64.3	68.9	60.0	66.6	69.6	63.8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67.6	70.3	65.2 (2015)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55.4	52.7	58.0 (2011)	64.4	62.8	66.0
영국	61.9	66.6	57.2	64.3	67.2	61.5
미국	68.6	71.3	66.1	71.0	74.1	67.9 (2016)
평균	56.2	60.7	51.7	59.3	62.5	56.1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13개국, 2017년은 16개국의 평균임

[그림 7-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전체),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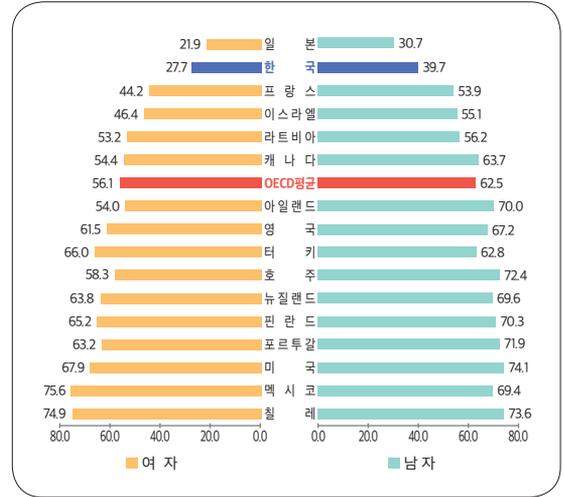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16개국의 평균임
 2.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미국은 2016년,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2015년 수치임

[그림 7-2] 성별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17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16개국의 평균임
 2.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미국은 2016년, 프랑스,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2015년 수치임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제3장

보건의료자원

8. 총 병원 병상 수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10. 임상 의사 수
11. 임상 간호인력 수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보건의료자원

8. 총 병원 병상 수

-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OECD 평균(4.7개)의 2.6배임
- 총 병원 병상 수는 2012년 10.3개에서 2017년 12.3개로 2.0개 증가함(OECD 평균 0.2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4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1개)임

〈표 8〉 총 병원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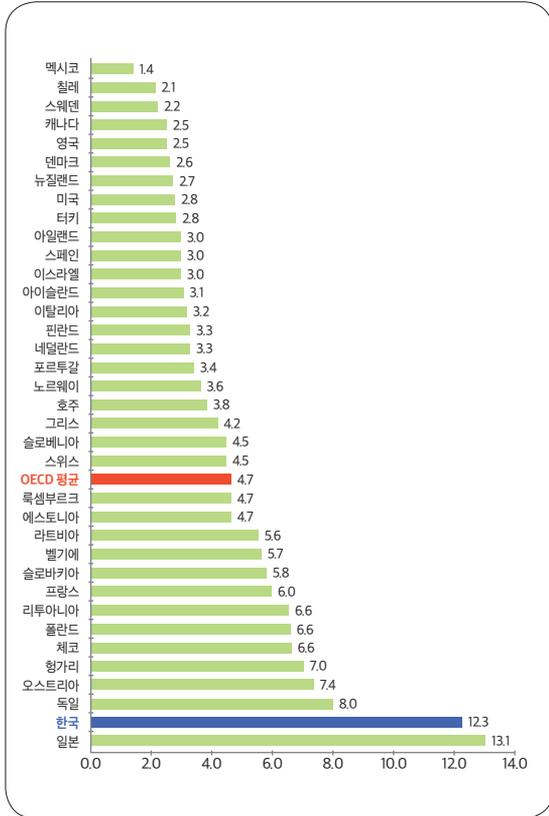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00명)

	2012	2017
호주	3.8	3.8 (2016)
오스트리아	7.7	7.4
벨기에	6.0	5.7
캐나다	2.8	2.5
칠레	2.2	2.1
체코	6.9	6.6
덴마크	3.1 (2011)	2.6
에스토니아	5.5	4.7
핀란드	5.3	3.3
프랑스	6.3	6.0
독일	8.3	8.0
그리스	4.5	4.2
헝가리	7.0	7.0
아이슬란드	3.3	3.1
아일랜드	2.5	3.0
이스라엘	3.1	3.0
이탈리아	3.4	3.2
일본	13.4	13.1
한국	10.3	12.3
라트비아	5.9	5.6
리투아니아	7.4	6.6
룩셈부르크	5.2	4.7
멕시코	1.4	1.4
네덜란드	4.3	3.3
뉴질랜드	2.8	2.7
노르웨이	4.0	3.6
폴란드	6.6	6.6
포르투갈	3.4	3.4
슬로바키아	5.9	5.8
슬로베니아	4.5	4.5
스페인	3.0	3.0
스웨덴	2.7	2.2
스위스	4.8	4.5
터키	2.7	2.8
영국	2.8	2.5
미국	2.9	2.8 (2016)
평균¹⁾	4.9	4.7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과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8] 총 병원 병상 수, 2017년

(단위: 개/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미국은 2016년 수치임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1개로 OECD 평균(3.6개)의 2.0배임
- 급성기 병원 병상 수는 2012년 7.0개에서 2017년 7.1개로 0.1개 증가함(OECD 평균 0.2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근 5년간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7.0개 → 7.1개), 아일랜드(2.4개 → 2.8개), 터키(2.6개 → 2.8개)분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급성기 병원 병상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1.4개)이고,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7.8개)임

<표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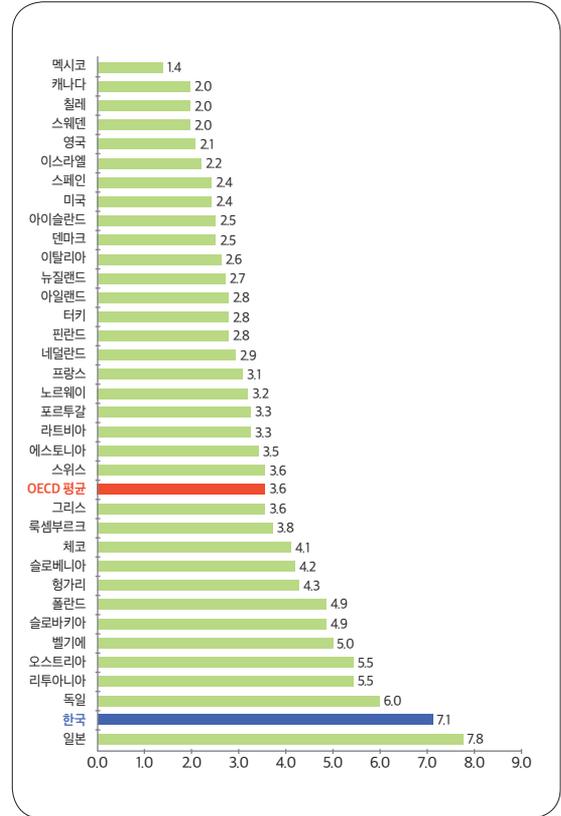
(단위: 개/인구 1,000명)

	2012	2017
호주	-	-
오스트리아	6.0	5.5
벨기에	5.3	5.0
캐나다	2.1	2.0
칠레	2.0	2.0
체코	4.5	4.1
덴마크	3.1 (2011)	2.5
에스토니아	3.9	3.5
핀란드	3.3	2.8
프랑스	3.4	3.1
독일	6.2	6.0
그리스	3.7	3.6
헝가리	4.3	4.3
아이슬란드	2.7	2.5
아일랜드	2.4	2.8
이스라엘	2.3	2.2
이탈리아	2.8	2.6
일본	8.0	7.8
한국	7.0	7.1
라트비아	3.6	3.3
리투아니아	6.3	5.5
룩셈부르크	4.0	3.8
멕시코	1.4	1.4
네덜란드	3.7	2.9
뉴질랜드	2.8	2.7
노르웨이	3.6	3.2
폴란드	5.0	4.9
포르투갈	3.3	3.3
슬로바키아	5.0	4.9
슬로베니아	4.3	4.2
스페인	2.4	2.4
스웨덴	2.5	2.0
스위스	3.7	3.6
터키	2.6	2.8
영국	-	2.1
미국	2.6	2.4 (2016)
평균¹⁾	3.8	3.6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4개국, 2017년은 35개국의 평균임

[그림 9] 급성기 병원 병상 수, 2017년

(단위: 개/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5개국의 평균임
2. 미국은 2016년 수치임

10. 임상 의사 수

- 임상 의사 수(한 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음(OECD 평균 3.4명)
- 임상 의사 수는 2012년 인구 1,000명당 2.1명에서 2017년 2.3명으로 0.2명 증가함(OECD 평균 0.2명 증가)
 - 최근 5년간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뉴질랜드(0.6명)와 슬로베니아(0.6명)임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2명임

〈표 10〉 임상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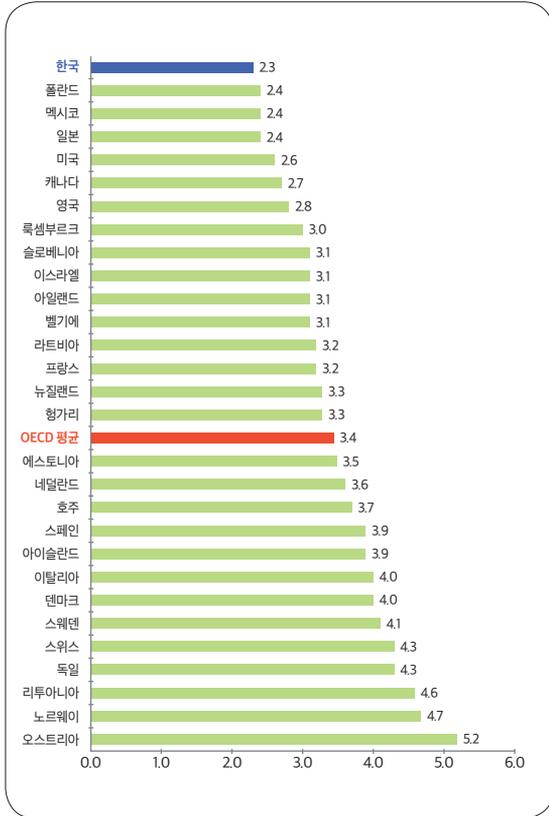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명)

	2012	2017
호주	3.3	3.7
오스트리아	4.9	5.2
벨기에	2.9	3.1
캐나다	2.4	2.7
칠레	-	-
체코	3.7	-
덴마크	3.8	4.0 (2016)
에스토니아	3.3	3.5
핀란드	3.1	-
프랑스	3.1	3.2
독일	4.0	4.3
그리스	-	-
헝가리	3.1	3.3
아이슬란드	3.6	3.9
아일랜드	2.7	3.1
이스라엘	3.0	3.1
이탈리아	3.9	4.0
일본	2.3	2.4 (2016)
한국	2.1	2.3
라트비아	3.1	3.2
리투아니아	4.2	4.6
룩셈부르크	2.8	3.0
멕시코	2.1	2.4
네덜란드	-	3.6
뉴질랜드	2.7	3.3
노르웨이	4.2	4.7
폴란드	2.2	2.4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2.5	3.1
스페인	3.8	3.9
스웨덴	4.1	4.1 (2016)
스위스	3.9	4.3
터키	-	-
영국	2.7	2.8
미국	2.5	2.6
평균¹⁾	3.2	3.4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0개국, 2017년은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10] 임상 의사 수,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일본, 스웨덴은 2016년 수치임

11. 임상 간호인력 수

- 임상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음
- 임상 간호인력은 2012년 인구 1,000명당 4.8명에서 2017년 6.9명으로 2.1명 증가함(OECD 평균 0.3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임상 간호인력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17.7명)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2.9명)임

<표 11> 임상 간호인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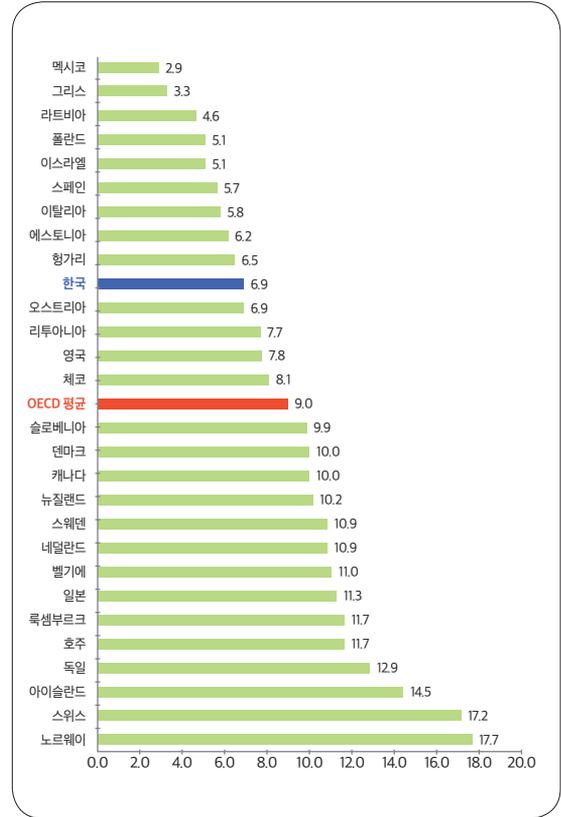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명)

	2012	2017
호주	10.2	11.7
오스트리아	6.7	6.9
벨기에	10.0	11.0 (2016)
캐나다	9.4	10.0
칠레	-	-
체코	8.1	8.1
덴마크	10.0	10.0 (2016)
에스토니아	6.2	6.2
핀란드	14.2	-
프랑스	-	-
독일	12.0	12.9
그리스	3.3	3.3
헝가리	6.3	6.5
아이슬란드	15.2	14.5
아일랜드	-	-
이스라엘	4.8	5.1
이탈리아	5.1	5.8
일본	10.5	11.3 (2016)
한국	4.8	6.9
라트비아	4.9	4.6
리투아니아	7.6	7.7
룩셈부르크	11.9	11.7
멕시코	2.6	2.9
네덜란드	-	10.9
뉴질랜드	10.0	10.2
노르웨이	16.5	17.7
폴란드	5.3 (2011)	5.1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8.2	9.9
스페인	5.2	5.7
스웨덴	11.1	10.9 (2016)
스위스	15.6	17.2
터키	-	-
영국	7.9	7.8
미국	-	-
평균¹⁾	8.7	9.0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과 2017년 모두 28개국의 평균임

[그림 11] 임상 간호인력 수,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벨기에, 덴마크, 일본, 스웨덴은 2016년 수치임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스캐너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8.2대로 OECD 평균(27.8대)보다 10.4대 많음
- CT 스캐너는 2012년 인구 100만 명당 36.9대에서 2017년 38.2대로 1.3대 증가함(OECD 평균 3.0대 증가)
- CT 스캐너 보유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일본은 OECD 회원국 중에서 CT 스캐너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100만 명당 111.5대에 이르고, 멕시코(5.8대), 헝가리(9.2대), 이스라엘(9.5대)은 인구 100만 명당 10대 이하에 그침
 - 우리나라는 일본(111.5대), 호주(64.4대), 아이슬란드(43.7대), 미국(42.6대), 덴마크(39.7대), 스위스(39.3대), 라트비아(39.1대)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CT 스캐너를 많이 보유함

〈표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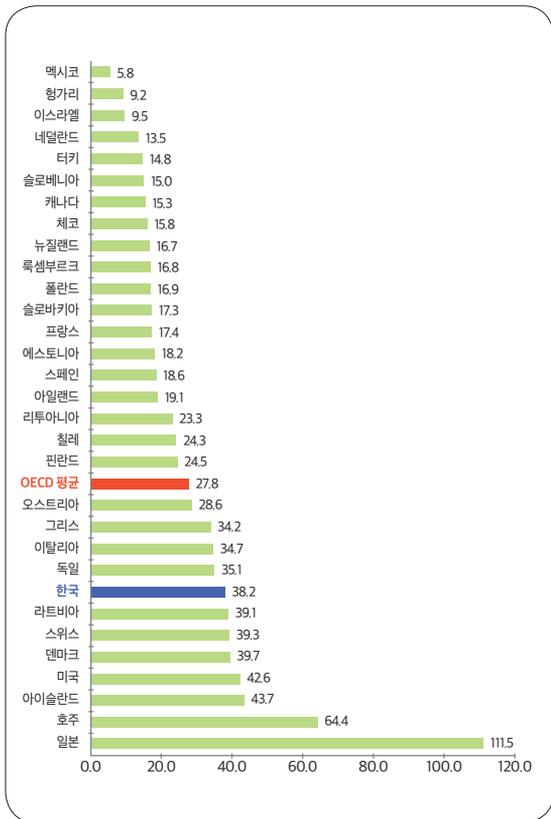
(단위: 대/인구 1,000,000명)

	2012	2017
호주	50.5	64.4
오스트리아	29.8	28.6
벨기에	-	-
캐나다	14.7	15.3
칠레	11.2	24.3
체코	15.0	15.8
덴마크	33.1	39.7
에스토니아	17.4	18.2
핀란드	21.8	24.5
프랑스	13.5	17.4
독일	34.0	35.1
그리스	33.4	34.2
헝가리	7.7	9.2
아이슬란드	40.5	43.7
아일랜드	16.7	19.1
이스라엘	9.0	9.5
이탈리아	33.3	34.7
일본	101.3 (2011)	111.5
한국	36.9	38.2
라트비아	32.4	39.1
리투아니아	23.8	23.3
룩셈부르크	24.5	16.8
멕시코	5.1	5.8
네덜란드	10.9	13.5
뉴질랜드	15.4	16.7
노르웨이	-	-
폴란드	15.4	16.9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15.5	17.3
슬로베니아	12.6	15.0
스페인	17.2	18.6
스웨덴	-	-
스위스	34.6	39.3
타키	13.5	14.8
영국	9.1	-
미국	43.9	42.6
평균¹⁾	24.8	27.8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2개국, 2017년은 31개국의 평균임

[그림 12]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보유 대수, 2017년

(단위: 대/인구 1,0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1개국의 평균임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장비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9.1대로 OECD 평균(17.4대)보다 11.7대 많음
- MRI 장비는 2012년 인구 100만 명당 23.4대에서 2017년 29.1대로 5.7대 증가함(OECD 평균 3.5대 증가)
- MRI 장비 보유 현황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일본은 OECD 회원국 중에서 MRI 장비가 가장 많은 국가로, 인구 100만 명당 55.2대에 이르고, 멕시코(2.6대), 헝가리(4.7대), 이스라엘(5.2대), 폴란드(7.9대), 체코(9.4대), 슬로바키아(9.6대)는 인구 100만 명당 10대 미만에 그침
 - 우리나라는 일본(55.2대), 미국(37.6대), 독일(34.7대)에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4번째로 MRI 장비를 많이 보유함

〈표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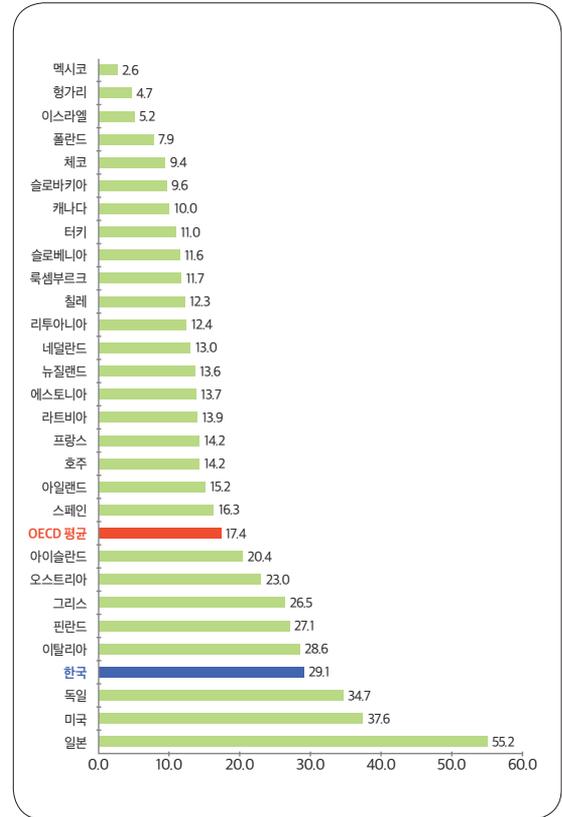
(단위: 대/인구 1,000,000명)

	2012	2017
호주	5.5	14.2
오스트리아	19.1	23.0
벨기에	-	-
캐나다	8.9	10.0
칠레	4.4	12.3
체코	7.0	9.4
덴마크	-	-
에스토니아	9.8	13.7
핀란드	21.6	27.1
프랑스	8.7	14.2
독일	28.7	34.7
그리스	21.9	26.5
헝가리	2.8	4.7
아이슬란드	21.8	20.4
아일랜드	12.4	15.2
이스라엘	3.3	5.2
이탈리아	24.6	28.6
일본	46.9 (2011)	55.2
한국	23.4	29.1
라트비아	9.8	13.9
리투아니아	10.0	12.4
룩셈부르크	13.2	11.7
멕시코	2.2	2.6
네덜란드	11.8	13.0
뉴질랜드	11.1	13.6
노르웨이	-	-
폴란드	5.5	7.9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6.3	9.6
슬로베니아	8.8	11.6
스페인	14.8	16.3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9.6	11.0
영국	7.2	-
미국	34.4	37.6
평균 ¹⁾	13.9	17.4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0개국, 2017년은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13〕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보유 대수, 2017년

(단위: 대/인구 1,0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6명으로 OECD 평균 (12.6명)보다 5.0명 적음

■ 의학계열 졸업자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8.0명에서 2017년 7.6명으로 0.4명 감소함(OECD 평균 1.6명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의학계열 졸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일랜드(24.9명)임

- 아일랜드는 의학계열 졸업자가 많이 배출되기도 하지만 많은 졸업생이 다른 국가로 이민을 하고 있음*

* RCSI health workforce research group, 「The Doctor Emigration Project」(<http://www.healthworkforceireland.com/>)

- OECD의 'Definitions, Sources and Methods'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의과대학이 없어서 의학계열 졸업자가 없고, 의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인력은 주로 해외에서 졸업장(자격증)을 취득해 옴

〈표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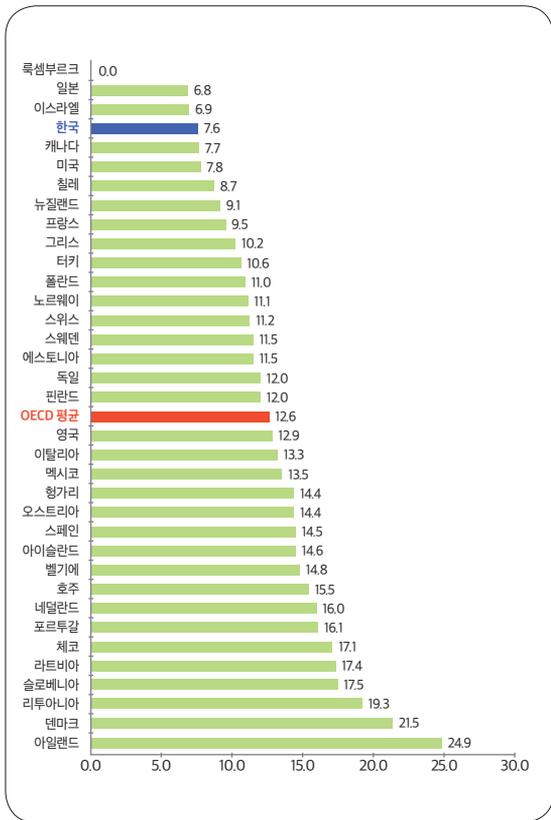
(단위: 명/인구 100,000명)

	2012	2017
호주	14.0	15.5
오스트리아	16.8	14.4
벨기에	10.6	14.8
캐나다	7.6	7.7
칠레	9.4	8.7
체코	15.1	17.1
덴마크	15.5	21.5 (2016)
에스토니아	10.3	11.5
핀란드	14.6	12.0 (2016)
프랑스	7.2	9.5 (2016)
독일	11.9	12.0
그리스	9.2	10.2 (2016)
헝가리	13.9	14.4
아이슬란드	15.3	14.6
아일랜드	17.0	24.9
이스라엘	3.8	6.9
이탈리아	11.1	13.3 (2016)
일본	5.9	6.8
한국	8.0	7.6
라트비아	11.5	17.4
리투아니아	13.2	19.3
룩셈부르크	0.0	0.0
멕시코	12.0	13.5
네덜란드	14.7	16.0
뉴질랜드	7.9	9.1
노르웨이	12.3	11.1
폴란드	9.3	11.0
포르투갈	13.3	16.1
슬로바키아	11.5	-
슬로베니아	12.9	17.5
스페인	9.5	14.5
스웨덴	11.9	11.5
스위스	9.8	11.2
타키	6.6	10.6
영국	13.9	12.9
미국	6.9	7.8
평균¹⁾	11.0	12.6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6개국, 2017년은 35개국의 평균임

[그림 14] 의학계열 졸업자 수, 2017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는 2016년 수치임



보건의료이용

-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 16. 국민 1인당 치과외사 외래진료 횟수
-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
-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
- 19. 제왕절개 건수
-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IV

보건의료이용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음(OECD 평균 7.1회)
-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2012년 14.3회에서 2017년 16.6회로 2.3회 증가함(OECD 평균 0.5회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0회를 넘어가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슬로바키아(10.9회), 헝가리(10.9회), 일본(12.6회, 2016년)이 있음
 -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는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회 미만으로 매우 적음

<표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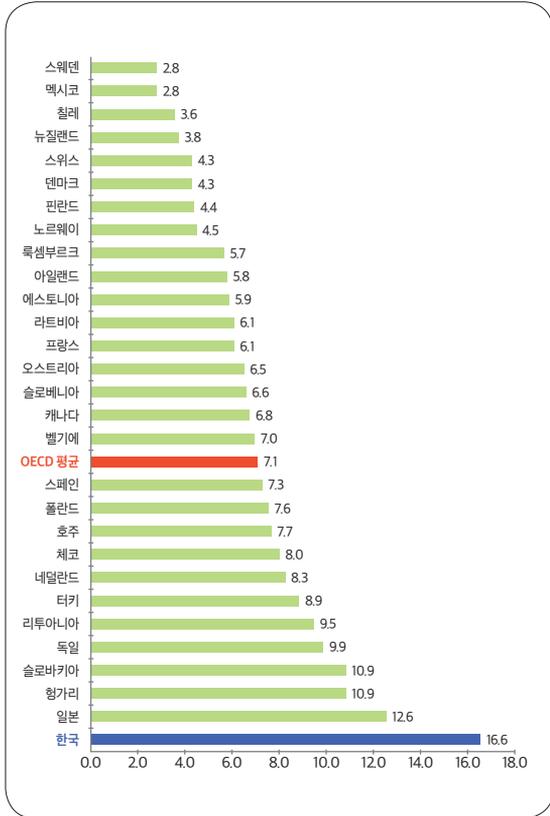
(단위: 회)

	2012	2017
호주	6.9	7.7
오스트리아	6.8	6.5
벨기에	6.7	7.0
캐나다	7.0	6.8
칠레	3.3	3.6 (2016)
체코	7.3	8.0
덴마크	4.7	4.3
에스토니아	6.3	5.9
핀란드	4.2	4.4
프랑스	6.7	6.1 (2016)
독일	9.7	9.9
그리스	-	-
헝가리	11.1	10.9
아이슬란드	5.9	-
아일랜드	3.8 (2010)	5.8 (2016)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12.9	12.6 (2016)
한국	14.3	16.6
라트비아	7.0	6.1
리투아니아	8.0	9.5
룩셈부르크	6.0	5.7
멕시코	3.0	2.8
네덜란드	6.2	8.3
뉴질랜드	3.7	3.8
노르웨이	4.4	4.5
폴란드	7.0	7.6
포르투갈	4.1	-
슬로바키아	11.1	10.9
슬로베니아	6.3	6.6
스페인	7.4 (2011)	7.3
스웨덴	2.9	2.8
스위스	3.9	4.3
터키	8.2	8.9
영국	-	-
미국	4.0 (2011)	-
평균¹⁾	6.6	7.1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2개국, 2017년은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15]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 2017년

(단위: 회)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칠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은 2016년 수치임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

-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회로 OECD 평균(1.3회)보다 0.2회 많음
-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2012년 1.7회에서 2017년 1.5회로 0.2회 감소함(OECD 평균 0.1회 증가)
- OECD 회원국에서 치과 의사 외래진료는 일반 의사 외래진료만큼 빈번하지 않지만, 네덜란드(2.8회)와 일본(3.2회, 2016년)은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많은 편임

<표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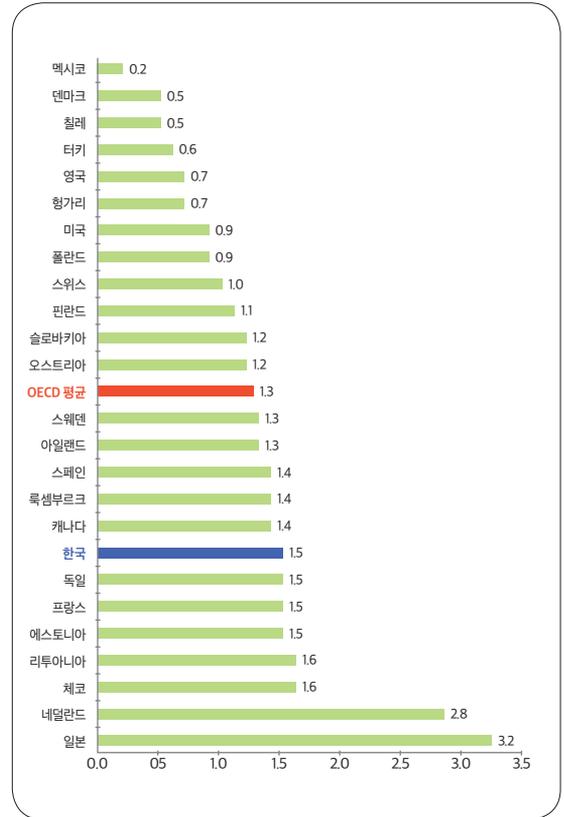
(단위: 회)

	2012	2017
호주	1.5 (2010)	-
오스트리아	1.2	1.2
벨기에	-	-
캐나다	1.3	1.4
칠레	0.6	0.5 (2016)
체코	1.5	1.6
덴마크	0.9	0.5
에스토니아	1.4	1.5
핀란드	1.1	1.1
프랑스	1.7	1.5 (2016)
독일	1.4	1.5
그리스	-	-
헝가리	0.7	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0.7 (2010)	1.3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3.2	3.2 (2016)
한국	1.7	1.5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1.2	1.6
룩셈부르크	1.4	1.4
멕시코	0.2	0.2
네덜란드	2.1	2.8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9	0.9
포르투갈	0.0	-
슬로바키아	1.3	1.2
슬로베니아	-	-
스페인	1.2 (2011)	1.4
스웨덴	1.3	1.3
스위스	1.1	1.0
터키	0.5	0.6
영국	0.8	0.7
미국	0.9	0.9 (2016)
평균¹⁾	1.2	1.3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27개국, 2017년은 25개국의 평균임

<그림 16>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진료 횟수, 2017년

(단위: 회)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5개국의 평균임
2. 칠레, 프랑스, 일본, 미국은 2016년 수치임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길(OECD 평균 8.2일)
-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는 2012년 16.1일에서 2017년 18.5일로 2.4일 증가함(OECD 평균 0.2일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28.2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멕시코(3.7일)임
 -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평균재원일수가 길
 - 멕시코(3.7일)와 터키(4.1일)는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짧은 편임

〈표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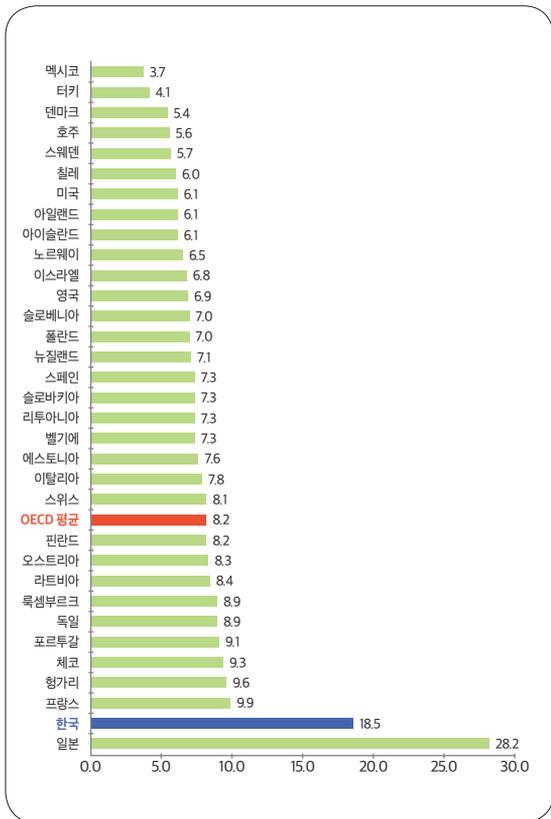
(단위: 일)

	2012	2017
호주	5.6	5.6 (2016)
오스트리아	7.9	8.3
벨기에	7.9	7.3
캐나다	-	-
칠레	5.7	6.0
체코	9.5	9.3
덴마크	5.7	5.4 (2016)
에스토니아	7.9	7.6
핀란드	11.2	8.2
프랑스	10.1	9.9 (2016)
독일	9.2	8.9
그리스	7.0	-
헝가리	9.6	9.6
아이슬란드	5.8	6.1
아일랜드	6.2	6.1
이스라엘	6.9	6.8
이탈리아	7.7	7.8
일본	31.2	28.2
한국	16.1	18.5
라트비아	8.3	8.4
리투아니아	7.6	7.3
룩셈부르크	8.8	8.9
멕시코	3.9	3.7
네덜란드	-	-
뉴질랜드	9.2	7.1 (2016)
노르웨이	6.2	6.5
폴란드	7.1	7.0
포르투갈	9.0	9.1
슬로바키아	7.7	7.3
슬로베니아	7.5	7.0
스페인	7.6	7.3
스웨덴	5.8	5.7
스위스	8.8	8.1
터키	4.0	4.1
영국	7.2	6.9
미국	6.1	6.1 (2016)
평균¹⁾	8.4	8.2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4개국, 2017년은 33개국의 평균임

[그림 17] 환자 1인당 병원 전체 평균 재원일수, 2017년

(단위: 일)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3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덴마크,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은 2016년 수치임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

- 한편, 입원환자가 급성기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머문 평균 시간(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은 7.5일로 OECD 평균(6.4일)보다 약간 깊
-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는 2012년 9.2일에서 2017년 7.5일로 1.7일 감소함(OECD 평균 0.2일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긴 국가는 일본(16.2일)이고, 가장 짧은 국가는 터키(4.1일)임

<표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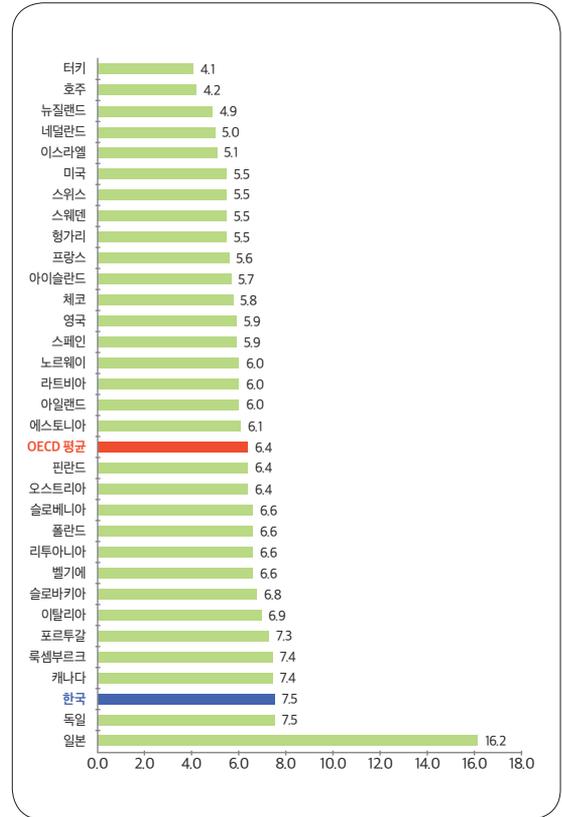
(단위: 일)

	2012	2017
호주	4.8	4.2 (2016)
오스트리아	6.5	6.4
벨기에	7.0	6.6
캐나다	7.6	7.4
칠레	-	-
체코	6.2	5.8
덴마크	-	-
에스토니아	5.6	6.1
핀란드	6.9	6.4
프랑스	5.7	5.6 (2016)
독일	7.8	7.5
그리스	5.2	-
헝가리	5.8	5.5
아이슬란드	5.5	5.7
아일랜드	5.9	6.0
이스라엘	5.1	5.1
이탈리아	6.8	6.9
일본	17.5	16.2
한국	9.2	7.5
라트비아	5.8	6.0
리투아니아	6.9	6.6
룩셈부르크	7.4	7.4
멕시코	-	-
네덜란드	6.4	5.0
뉴질랜드	6.0	4.9 (2016)
노르웨이	5.8	6.0
폴란드	6.8	6.6
포르투갈	7.5	7.3
슬로바키아	6.2	6.8
슬로베니아	6.9	6.6
스페인	6.1	5.9
스웨덴	5.6	5.5
스위스	6.1	5.5
터키	3.9	4.1
영국	6.0	5.9
미국	5.4	5.5 (2016)
평균 ¹⁾	6.6	6.4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33개국, 2017년은 32개국의 평균임

<그림 18> 환자 1인당 급성기 진료 평균 재원일수, 2017년

(단위: 일)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2개국의 평균임
2.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은 2016년 수치임

19. 제왕절개 건수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451.9건으로 OECD 평균(265.7건)의 1.7배임
- 제왕절개 건수는 2012년 360.0건에서 2017년 451.9건으로 91.9건 증가함(OECD 평균 10.7건 증가)
-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터키(531.4건)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이스라엘(148.4건임)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표 19〉 제왕절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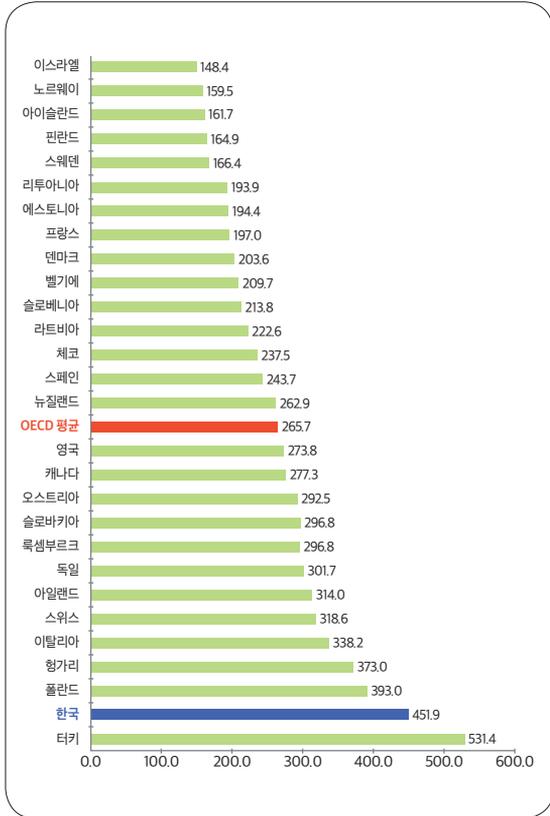
(단위: 건/출생아 1,000명)

	2012	2017
호주	-	-
오스트리아	288.4	292.5
벨기에	202.3	209.7
캐나다	263.6	277.3
칠레	-	-
체코	243.8	237.5 (2016)
덴마크	211.8	203.6 (2016)
에스토니아	199.9	194.4
핀란드	161.9	164.9
프랑스	200.4	197.0
독일	308.9	301.7
그리스	-	-
헝가리	340.1	373.0
아이슬란드	152.8	161.7
아일랜드	277.5	314.0 (2016)
이스라엘	175.9	148.4
이탈리아	368.4	338.2
일본	-	-
한국	360.0	451.9
라트비아	223.7	222.6
리투아니아	243.5	193.9
룩셈부르크	296.5	296.8
멕시코	-	-
네덜란드	157.8	-
뉴질랜드	253.9	262.9 (2016)
노르웨이	-	159.5
폴란드	315.7	393.0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303.6	296.8
슬로베니아	194.8	213.8
스페인	251.5	243.7
스웨덴	165.2	166.4
스위스	-	318.6
터키	479.8	531.4
영국	242.7	273.8
미국	-	-
평균¹⁾	255.0	265.7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은 27개국, 2017년은 28개국의 평균임

[그림 19] 제왕절개 건수, 2017년

(단위: 건/출생아 1,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8개국의 평균임
 2.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2016년 수치임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 인구 10만 명당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7.7건으로 OECD 평균(36.5건)의 1/5 수준임
-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은 2012년 6.6건에서 2017년 7.7건으로 1.1건 증가함(OECD 평균 6.0건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덴마크(64.8건, 2016년)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4.4건)임
 - 우리나라의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음

<표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단위: 건/인구 100,000명)

	2012	2017
호주	53.8	52.3 (2016)
오스트리아	43.5	39.2
벨기에	64.5	63.6
캐나다	56.3	55.4
칠레	-	-
체코	50.1	45.3
덴마크	68.0	64.8 (2016)
에스토니아	32.7	35.1
핀란드	47.5	31.6
프랑스	29.6	28.9
독일	68.4	58.5
그리스	-	-
헝가리	28.0	28.7
아이슬란드	44.0	21.5
아일랜드	21.6	20.3
이스라엘	37.1	34.7
이탈리아	37.8	34.0
일본	-	-
한국	6.6	7.7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62.1	55.2
룩셈부르크	47.7	22.6
멕시코	3.6	4.4
네덜란드	66.7	-
뉴질랜드	43.9	37.7 (2016)
노르웨이	-	28.6
폴란드	54.6	50.0
포르투갈	38.0	35.4 (2015)
슬로바키아	37.4	46.1
슬로베니아	40.6	39.2
스페인	17.7	17.9 (2015)
스웨덴	34.9	30.4
스위스	-	43.8
터키	67.0	-
영국	28.7	24.4
미국	-	-
평균¹⁾	42.5	36.5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국의 평균으로, 2012년과 2017년은 모두 29개국의 평균임

[그림 20]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2017년

(단위: 건/인구 100,000명)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29개국의 평균임
2.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2016년, 포르투갈, 스페인은 2015년 수치임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제V장

보건의료비용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 재원 비중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비용

-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5년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2%p 상승하였음
 -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0.1%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 OECD 통계 포털은 2019년 8월 현재 「2010년 기준 GDP」를 적용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향후 「2015년 기준 GDP」(한국은행 2019년 6월 확정 발표)로 업데이트할 예정인바, GDP의 변화에 따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도 수치가 갱신될 것임

- 2017년에 우리나라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최종 소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 경상의료비)은 7.6%로 OECD 평균(8.8%)보다 낮음
 -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10%를 넘는 국가는 미국(17.1%)을 비롯하여 12개국에 달함
 - 한편, 터키(4.2%), 룩셈부르크(5.4%), 멕시코(5.5%), 라트비아(6.0%), 에스토니아(6.4%), 리투아니아(6.5%), 폴란드(6.5%), 슬로바키아(6.7%), 헝가리(6.9%)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7%에도 미치지 못함

<표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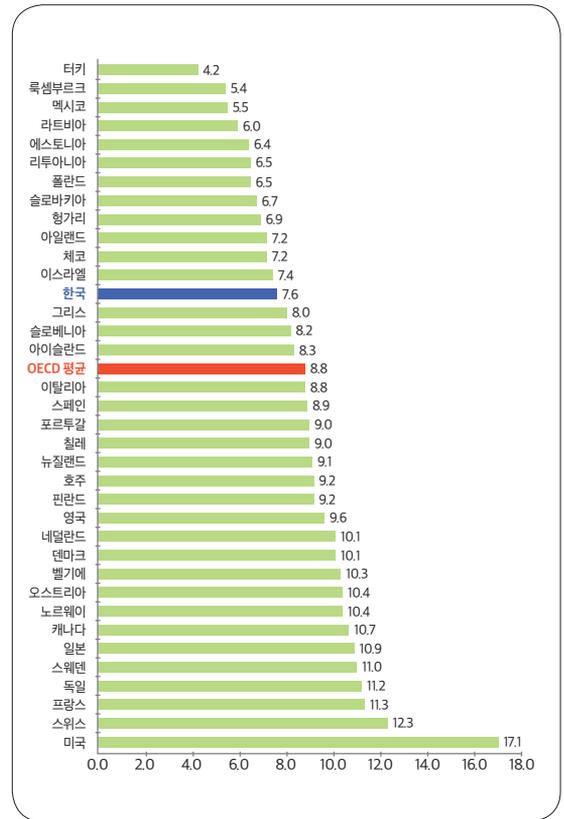
(단위: %)

	2012	2017
호주	8.7	9.2
오스트리아	10.2	10.4
벨기에	10.3	10.3
캐나다	10.4	10.7
칠레	7.0	9.0
체코	7.0	7.2
덴마크	10.2	10.1
에스토니아	5.8	6.4
핀란드	9.3	9.2
프랑스	11.3	11.3
독일	10.8	11.2
그리스	8.9	8.0
헝가리	7.5	6.9
아이슬란드	8.2	8.3
아일랜드	10.7	7.2
이스라엘	7.1	7.4
이탈리아	9.0	8.8
일본	10.8	10.9
한국	6.4	7.6
라트비아	5.4	6.0
리투아니아	6.3	6.5
룩셈부르크	6.6	5.4
멕시코	5.8	5.5
네덜란드	10.5	10.1
뉴질랜드	9.7	9.1
노르웨이	8.8	10.4
폴란드	6.2	6.5
포르투갈	9.3	9.0
슬로바키아	7.6	6.7
슬로베니아	8.8	8.2
스페인	9.1	8.9
스웨덴	10.9	11.0
스위스	11.1	12.3
터키	4.5	4.2
영국	8.3	9.6
미국	16.3	17.1
평균¹⁾	8.7	8.8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21]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7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 경상의료비 중에서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8.9%로 OECD 평균(73.6%)보다 낮음
 -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80%를 넘는 국가는 노르웨이(85.5%), 미국(84.5%), 독일(84.4%), 일본(84.1%), 덴마크(84.0%), 룩셈부르크(83.8%), 스웨덴(83.7%), 프랑스(83.4%), 체코(82.1%), 아이슬란드(81.8%), 네덜란드(81.5%)임
 - 한편, 멕시코(51.5%), 라트비아(57.3%), 한국(58.9%), 칠레(59.9%)는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낮은 국가로 분류됨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왔으나,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이 아직까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추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60.6	58.7	60.5	60.6	59.7	58.9	59.0	58.7	58.9	59.1	58.9
OECD 평균	71.9	72.4	73.4	73.2	73.1	72.6	72.4	73.4	73.4	73.6	73.6

〈표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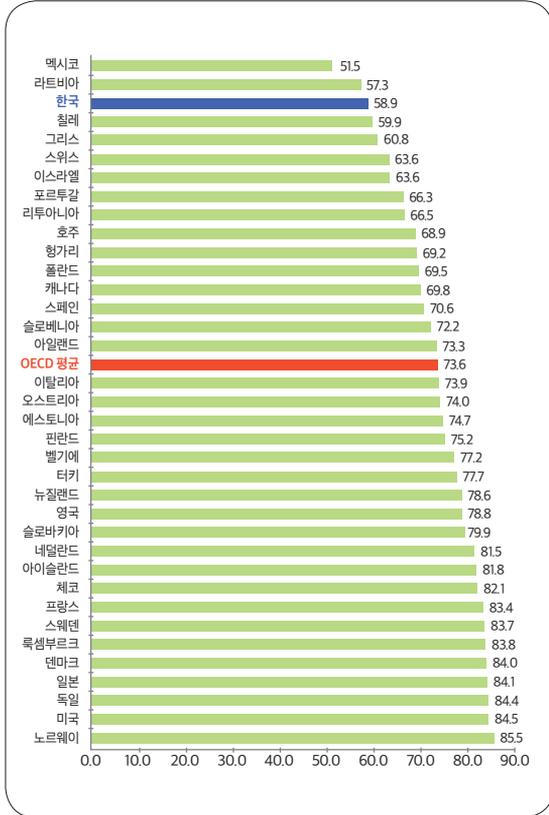
(단위: %)

	2012	2017
호주	67.5	68.9
오스트리아	74.7	74.0
벨기에	78.1	77.2
캐나다	70.9	69.8
칠레	60.0	59.9
체코	83.7	82.1
덴마크	84.0	84.0
에스토니아	76.7	74.7
핀란드	75.5	75.2
프랑스	76.2	83.4
독일	83.1	84.4
그리스	66.5	60.8
헝가리	65.5	69.2
아이슬란드	79.9	81.8
아일랜드	72.1	73.3
이스라엘	62.6	63.6
이탈리아	76.1	73.9
일본	83.9	84.1
한국	58.9	58.9
라트비아	60.3	57.3
리투아니아	67.3	66.5
룩셈부르크	82.9	83.8
멕시코	51.6	51.5
네덜란드	82.1	81.5
뉴질랜드	80.5	78.6
노르웨이	84.8	85.5
폴란드	70.0	69.5
포르투갈	65.6	66.3
슬로바키아	72.2	79.9
슬로베니아	72.0	72.2
스페인	72.2	70.6
스웨덴	83.6	83.7
스위스	63.5	63.6
타이	79.2	77.7
영국	82.9	78.8
미국	48.3	84.5
평균 ¹⁾	72.6	73.6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2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017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로 OECD 평균(20.5%)보다 높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8%),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9.4%)임
 - 우리나라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3%), 그리스(34.8%)에 이어 네 번째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큼
- 2012년에 35.0%였던 가계직접부담은 미미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7년 33.7%를 기록함

<표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단위: %)

	2012	2017
호주	19.9	18.3 (2016)
오스트리아	18.7	19.2
벨기에	17.7	17.6
캐나다	14.4	15.0
칠레	33.4	33.5
체코	15.3	14.8
덴마크	14.2	13.7
에스토니아	21.5	23.6
핀란드	18.7	20.2
프랑스	10.1	9.4
독일	14.0	12.5
그리스	30.1	34.8
헝가리	29.4	26.9
아이슬란드	18.6	16.5
아일랜드	13.9	12.3
이스라엘	23.4	22.3
이탈리아	21.7	23.5
일본	13.0	12.8
한국	35.0	33.7
라트비아	37.8	41.8
리투아니아	31.8	32.3
룩셈부르크	10.4	10.8
멕시코	42.6	41.3
네덜란드	10.1	11.1
뉴질랜드	12.3	13.6
노르웨이	14.8	14.2
폴란드	24.3	22.8
포르투갈	28.2	27.5
슬로바키아	23.2	18.7
슬로베니아	12.5	12.3
스페인	22.8	23.6
스웨덴	15.4	15.0
스위스	28.8	28.9
터키	15.9	17.4
영국	9.7	16.0
미국	12.1	11.0
평균¹⁾	20.4	20.5

주) 1.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2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017년

(단위: %)



주) 1.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2. 호주는 2016년 수치임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 OECD 회원국 각각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US\$ PPP로 OECD 평균(3,854US\$ PPP)보다 낮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10,207US\$ PPP)으로,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지출을 하고 있음
 - 반면, 멕시코(1,105US\$ PPP)와 터키(1,186US\$ PPP)는 1,500US\$ PPP 이하의 낮은 지출을 하고 있음
- 2017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012년(2,080US\$ PPP)에 비교해서 1.4배 증가함

〈표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단위: US\$ PPP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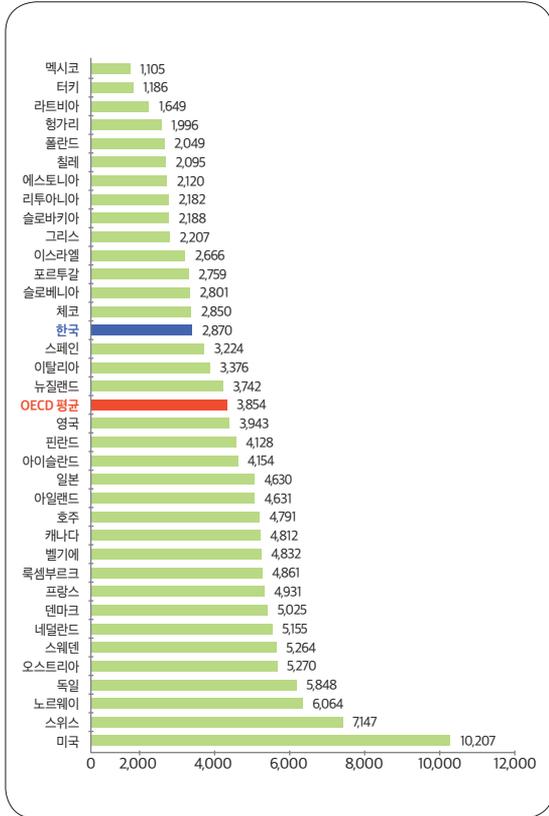
	2012	2017
호주	3,854	4,791
오스트리아	4,588	5,270
벨기에	4,161	4,832
캐나다	4,286	4,812
칠레	1,485	2,095
체코	2,090	2,850
덴마크	4,315	5,025
에스토니아	1,515	2,120
핀란드	3,647	4,128
프랑스	4,306	4,931
독일	4,734	5,848
그리스	2,168	2,207
헝가리	1,767	1,996
아이슬란드	3,398	4,154
아일랜드	4,373	4,631
이스라엘	2,223	2,666
이탈리아	3,111	3,376
일본	3,971	4,630
한국	2,080	2,870
라트비아	1,156	1,649
리투아니아	1,568	2,182
룩셈부르크	5,207	4,861
멕시코	1,004	1,105
네덜란드	4,782	5,155
뉴질랜드	3,240	3,742
노르웨이	5,210	6,064
폴란드	1,579	2,049
포르투갈	2,346	2,759
슬로바키아	2,097	2,188
슬로베니아	2,431	2,801
스페인	2,726	3,224
스웨덴	4,694	5,264
스위스	5,796	7,147
터키	895	1,186
영국	2,968	3,943
미국	8,423	10,207
평균²⁾	3,283	3,854

주) 1.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2012년과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으로, 2012년 2017년 모두 36개국의 평균임

[그림 24]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17년

(단위: US\$ PPP¹⁾)



주) 1.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OECD 평균은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36개국의 평균임



제1장

의약품 시장

25. 의약품 소비량

26. 의약품 판매액

VI 의약품 시장

25.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를 기준으로,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음
 - 특히,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은 558.5DDD(Defined Daily Dose, 1일 상용량)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함
 -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는 32.0DDD로 OECD 평균(19.1DDD)의 1.7배를 소비함

<표 25> 의약품 소비량,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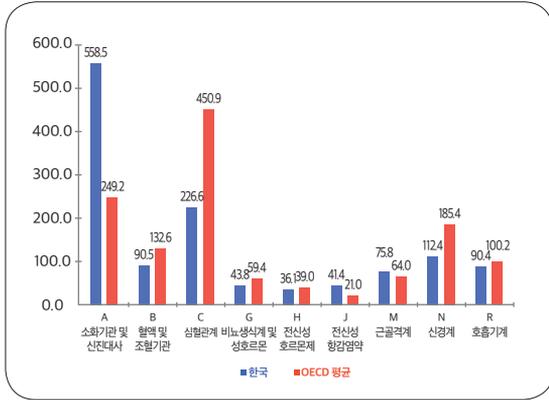
(단위: DDD¹⁾/1,000명/1일)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	
			최저 ~ 최고	평균값 ²⁾ / 중앙값 ²⁾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558.5	129.8 ~ 558.5	249.2 / 227.4
A02A	제산제	4.8	0.0 ~ 10.3	1.8 / 0.8
A02B	위궤양 치료제	48.1	35.4 ~ 124.9	75.2 / 72.1
A10	당뇨병 치료제	66.9	45.5 ~ 92.1	67.9 / 67.5
B	혈액 및 조혈기관	90.5	36.2 ~ 288.0	132.6 / 116.1
C	심혈관계	226.6	176.4 ~ 722.2	450.9 / 447.5
C01A	강심배당제	1.1	0.4 ~ 3.7	2.1 / 2.2
C01B	항부정맥약	1.3	1.0 ~ 10.4	4.3 / 3.2
C02	혈압강하제	2.1	1.2 ~ 32.3	8.5 / 6.0
C03	이뇨제	18.3	8.1 ~ 90.1	39.0 / 38.7
C07	베타 차단제	13.5	13.5 ~ 83.2	44.2 / 41.7
C08	칼슘 차단제	50.5	16.4 ~ 90.0	53.5 / 51.6
C09	레닌 안지오텐신억제제	47.6	47.6 ~ 365.1	175.2 / 175.6
C10	지질완화 약물	68.7	21.5 ~ 149.0	102.6 / 111.5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43.8	13.2 ~ 132.4	59.4 / 51.0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9.9	3.7 ~ 86.8	32.8 / 24.7
H	전신성 호르몬제	36.1	20.4 ~ 86.1	39.0 / 36.8
J	전신성 항감염약	41.4	12.2 ~ 41.4	21.0 / 19.3
J01	전신성 항균물질	32.0	9.5 ~ 35.3	19.1 / 18.2
M	근골격계	75.8	28.4 ~ 96.5	64.0 / 63.3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52.0	9.2 ~ 79.1	43.0 / 43.0
N	신경계	112.4	86.4 ~ 401.4	185.4 / 155.6
N02	진통제	13.4	1.2 ~ 94.8	28.6 / 20.7
N05B	불안제거약	12.9	1.9 ~ 93.9	18.8 / 12.9
N05C	취면제 및 진정제	11.5	0.0 ~ 66.6	18.8 / 12.8
N06A	항우울제	22.0	15.0 ~ 141.4	63.0 / 57.0
R	호흡기계	90.4	35.8 ~ 214.1	100.2 / 88.4
R03	기도폐색질환약	13.5	8.3 ~ 91.4	42.7 / 42.3

주) 1.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함
 2. ATC 항목별로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그림 25] 의약품 소비량, 2017년¹⁾

(단위: DDD²⁾/인구 1,000명/1일)



- 주) 1.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ATC 항목별 한국과 OECD 평균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2. DDD(Defined Daily Dose)란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함

26. 의약품 판매액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를 기준으로, 구매력 지수를 적용한 1인당 의약품 판매액(1인당 US\$ PPP 기준)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일부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의약품만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표 26> 의약품 판매액,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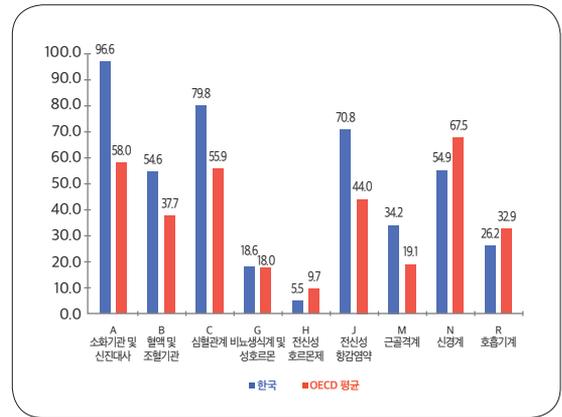
(단위: 1인당 US\$ PPP²⁾)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	
			최저 ~ 최고	평균값 ²⁾ / 중앙값 ²⁾
	총판매	634.0	90.7 ~ 751.5	472.6 / 484.9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96.6	5.0 ~ 96.6	58.0 / 54.6
A02A	제산제	1.7	0.0 ~ 1.8	0.6 / 0.6
A02B	위궤양 치료제	22.6	0.7 ~ 22.6	9.8 / 7.1
A10	당뇨병 치료제	22.1	2.1 ~ 49.2	27.3 / 24.0
B	혈액 및 조혈기관	54.6	4.0 ~ 84.1	37.7 / 36.5
C	심혈관계	79.8	2.9 ~ 112.4	55.9 / 63.6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4	0.1 / 0.1
C01B	항부정맥약	0.4	0.1 ~ 2.1	0.9 / 0.9
C02	혈압강하제	0.8	0.2 ~ 7.4	2.9 / 2.5
C03	이노제	0.5	0.3 ~ 7.2	2.9 / 3.0
C07	베타 차단제	2.9	0.2 ~ 10.5	5.8 / 6.0
C08	칼슘 차단제	7.9	0.3 ~ 11.6	3.7 / 3.7
C09	레닌 억제제/안지오텐신억제제	27.8	0.9 ~ 41.2	18.4 / 20.5
C10	지질완화 약물	30.7	0.6 ~ 41.6	15.1 / 13.5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8.6	0.8 ~ 34.4	18.0 / 18.6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보조제	4.4	0.3 ~ 17.7	8.0 / 7.5
H	전신성 호르몬제	5.5	0.9 ~ 18.2	9.7 / 9.3
J	전신성 항감염약	70.8	9.2 ~ 88.3	44.0 / 42.6
J01	전신성 항균물질	29.9	2.2 ~ 29.9	12.7 / 11.2
M	근골격계	34.2	1.2 ~ 42.3	19.1 / 17.8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4.6	0.5 ~ 16.2	8.2 / 8.3
N	신경계	54.9	3.7 ~ 124.1	67.5 / 67.4
N02	진통제	9.4	0.8 ~ 28.3	14.6 / 14.0
N05B	불안제/거약	1.4	0.1 ~ 8.6	2.6 / 2.2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2	0.0 ~ 11.6	2.8 / 2.0
N06A	항우울제	4.9	0.3 ~ 30.3	9.4 / 8.8
R	호흡기계	26.2	2.1 ~ 57.4	32.9 / 32.5
R03	기도폐쇄질환약	7.2	1.7 ~ 34.7	20.4 / 21.6
	기타 ³⁾	192.7	0.0 ~ 272.8	139.8 / 163.0

주) 1.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ATC 항목별로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통계가 있는 각각의 평균과 중앙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3.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26] 의약품 판매액, 2017년¹⁾

(단위: 1인당 US\$ PPP²⁾)



주) 1. 2017년(혹은 인접 과거년도) ATC 항목별 한국과 OECD 평균값으로, 항목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통계 제출 국가는 상이함
 2.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OECD Health Statistics 2019

제1장

장기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VII 장기요양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상과 침상(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을 모두 집계)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60.9개로 OECD 평균(48.0개)보다 많음
- 장기요양 병원 병상 및 침상은 2012년 51.1개에서 2017년 60.9개로 9.8개 증가함(OECD 평균 3.3개 감소)
- OECD 회원국 중에서 장기요양 병상 및 침상 수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82.8개)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그리스(4.5개)임
 - 단, 장기요양 병원 병상은 우리나라가 36.7개로 가장 많음
 - 우리나라와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시설의 침상이 병원의 병상보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단위: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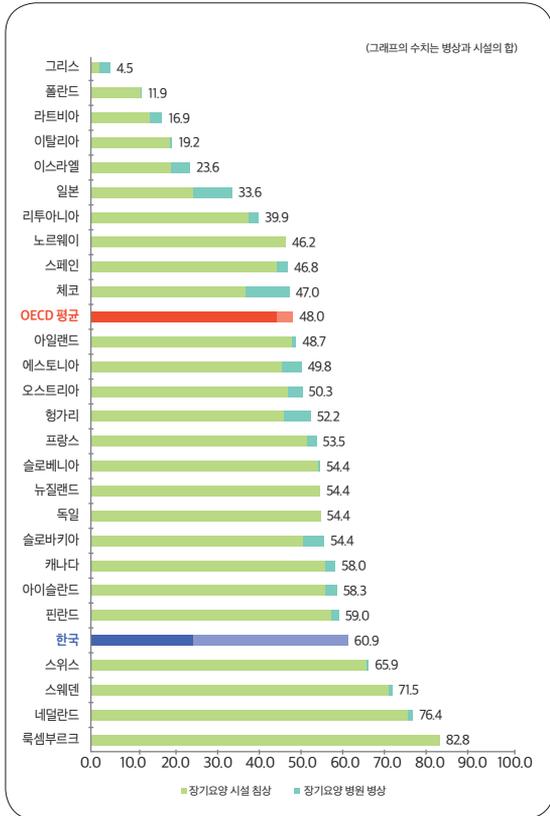
	2012			2017		
	전체 ¹⁾	병원병상	시설침상	전체 ¹⁾	병원병상	시설침상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46.7	2.9	43.8	50.3	3.6	46.7
벨기에	72.1	0.9	71.2	-	-	-
캐나다	54.3	3.6	50.7	58.0	2.6	55.4
칠레	-	-	-	-	-	-
체코	50.9	11.9	39.0	47.0	10.4	36.6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46.8	7.4	39.4	49.8	4.7	45.1
핀란드	72.4	10.7	61.7	59.0	2.0	57.0
프랑스	58.6	2.9	55.7	53.5	2.5	51.0
독일	-	-	-	54.4	0.0	54.4
그리스	-	-	-	4.5	2.7	1.8
헝가리	56.4	6.9	49.5	52.2	6.5	45.7
아이슬란드	63.8	2.8	61.0	58.3	2.8	55.5
아일랜드	53.4	1.2	52.2	48.7	1.2	47.5
이스라엘	28.6	5.2	23.4	23.6	4.7	18.9
이탈리아	18.9	0.8	18.1	19.2	0.6	18.6
일본	36.1	11.1	25.0	33.6	9.5	24.1
한국	51.1	27.9	23.2	60.9	36.7	24.2
라트비아	23.7	3.6	20.1	16.9	3.2	13.7
리투아니아	37.7	3.3	34.4	39.9	2.6	37.3
룩셈부르크	56.6	0.0	56.6	82.8	0.0	82.8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91.3	2.9	88.4	76.4	1.6	74.8
뉴질랜드	-	-	-	54.4	0.2	54.2
노르웨이	54.3	0.0	54.3	46.2	0.0	46.2
폴란드	12.9	0.3	12.6	11.9	0.1	11.8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7.3	5.7	51.6	55.4	5.1	50.3
슬로베니아	59.2	0.6	58.6	54.4	0.8	53.6
스페인	49.4	3.3	46.1	46.8	2.7	44.1
스웨덴	73.1	1.0	72.1	71.5	0.9	70.6
스위스	69.6	1.1	68.5	65.9	0.7	65.2
터키	-	-	-	-	-	-
영국	-	-	-	-	-	-
미국	39.8	1.5	38.3	-	-	-
평균²⁾	51.3	4.6	46.8	48.0	4.0	44.0

주) 1. 전체는 병원 병상수와 시설 침상 수의 합임

2.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2년과 2017년 해당연도에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통계를 모두 제출한 국가의 평균으로 2012년은 26개국, 2017년은 27개국 평균임

[그림 27]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수, 2017년

(단위: 개/65세 이상 인구 1,000명)



주) 1. 본 지표는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7년 해당연도에 병원 병상과 시설 침상 통계를 모두 제출한 국가의 지표이며, OECD 평균은 2017년 통계가 있는 27개국의 평균임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모두 받는 사람은 양쪽에 각각 집계됨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은 인구는 5.6%로 OECD 평균(9.0%)보다 낮으며, 시설서비스를 받은 인구도 2.7%로 OECD 평균(3.5%)보다 낮음
- 비록 OECD 국가보다 수급률이 낮지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재가서비스 수급률은 2012년에 4.0%였지만, 최근 5년간 1.6%p 상승하였음(OECD 평균 0.6%p 하락)
 - 시설서비스 수급률은 2012년에 2.4%였지만, 최근 5년간 0.3%p 상승하였음(OECD 평균 0.2%p 하락)
- OECD 국가 중에서 재가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18.5%), 스위스(16.7%)이고, 시설서비스 수급률이 높은 국가는 호주(6.2%), 스위스(5.7%), 룩셈부르크(5.3%), 에스토니아(5.0%)임

<표 2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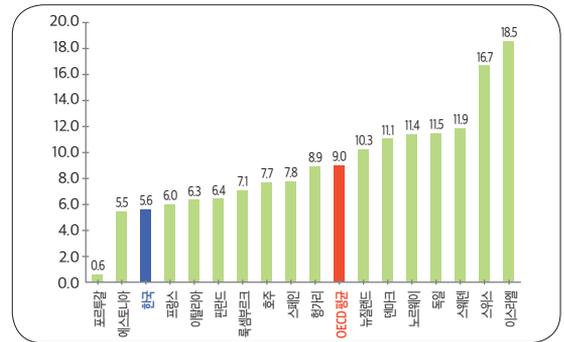
(단위: %)

	2012		2017	
	재가	시설	재가	시설
호주	8.4	6.7	7.7	6.2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4.1	-	4.1
칠레	-	-	-	-
체코	-	-	-	-
덴마크	13.7	4.2	11.1	-
에스토니아	6.9	2.4	5.5	5.0
핀란드	7.2	4.8	6.4	4.5
프랑스	6.5	4.4	6.0	4.1
독일	8.2	4.0	11.5	4.1
그리스	-	-	-	-
헝가리	10.1	3.0	8.9	3.0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3.4	-	3.4
이스라엘	20.0	2.2	18.5	1.7
이탈리아	4.3	-	6.3	-
일본	-	2.8	-	2.6
한국	4.0	2.4	5.6	2.7
라트비아	-	0.5	-	0.4
리투아니아	-	-	-	-
룩셈부르크	7.9	5.5	7.1	5.3
멕시코	17.3	-	-	-
네덜란드	13.7	6.2	-	-
뉴질랜드	13.1	5.0	10.3	4.4
노르웨이	12.1	5.2	11.4	4.3
폴란드	-	0.8	-	0.9
포르투갈	0.4	0.9	0.6	1.3
슬로바키아	-	3.4	-	4.2
슬로베니아	6.4	4.9	-	-
스페인	5.3	1.7	7.8	2.0
스웨덴	11.7	4.9	11.9	4.3
스위스	14.4	6.2	16.7	5.7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	-
평균 ¹⁾	9.6	3.7	9.0	3.5

주) 1.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2년과 2017년 해당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평균으로 2012년 재가 20개국, 2012년 시설 24개국, 2017년 재가 17개국, 2017년 시설 21개국의 평균임

[그림 28-1]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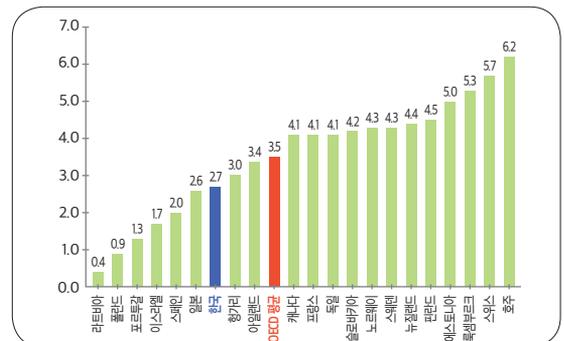
(단위: %)



주) 1. 본 지표는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2년과 2017년 해당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지표이며, OECD 평균은 2017년의 재가 통계를 제출한 17개국 평균임

[그림 28-2]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시설), 2017년

(단위: %)



주) 1. 본 지표는 인접 과거년도 통계를 대체하지 않고, 2012년과 2017년 해당연도에 제출한 국가의 지표이며, OECD 평균은 2017년의 시설 통계를 제출한 21개국 평균임

OECD Health Statistics 2019

본 책자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9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044)202-2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044)287-8391

- 만든 곳

경성문화사 ☎(02)786-2999